

P·A·R·T 04

방송영상플랫폼 이용 동향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제 1 장 일반 현황

- 제 1 절 미디어별 시청자 이용 현황
- 제 2 절 미디어별 시청시간
- 제 3 절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 행태

제 2 장 시청률 분석

- 제 1 절 가구시청률과 개인시청률 동향
- 제 2 절 채널 시청률 동향
- 제 3 절 2012년 인기 프로그램 분석



일반 현황

제4부 방송영상플랫폼 이용 동향

제 1 절 미디어별 시청자 이용 현황

1 미디어별 현황 총괄

〈표 4-1-1〉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201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자료¹⁾를 재구성한 것으로, 조사대상 미디어별 시청자 이용 현황을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성별, 연령별 중복응답). 지상파방송이 97.2%로 시청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케이블방송이 75.2%로 그 뒤를 이었다. 지상파 DMB(22.2%), IPTV 실시간 방송(13.8%), IPTV VOD 서비스(11.1%), 위성방송(7.3%), 위성 DMB(2.1%) 순으로 조사된 미디어별 시청자 비율의 순위는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60세 이상에서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실시간, IPTV VOD, 지상파 DMB, 위성 DMB 순으로 약간의 순위 차이를 보였다.²⁾

전체적으로 지상파방송 시청의 대부분이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블방송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 간에는 지상파 DMB 이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시청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은 연령이 높을수록, IPTV와 DMB는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시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1)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2) 〈표 4-1-1〉의 수치(%)는 중복응답이 가능한 상황에서 산출된 것이다. 즉, 응답자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본다면 둘 다 시청한다고 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전체 시청자 비율이 97.2%이고 케이블방송이 75.2%라는 것은 결국 10명 중에서 거의 모두가 지상파방송을 보고, 또한 그 10명 중에서 7.5명은 케이블방송을 시청한다는 의미가 된다.

표 4-1-1 2011년 미디어별 시청자 비율 총괄표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응답자(명)	6,669	3,288	3,381	769	1,049	1,259	1,317	1,051	1,224	
지상파방송	97.2	96.4	97.9	93.2	93.9	97.8	97.6	99.5	99.4	
케이블방송	75.2	74.3	76.0	70.4	73.2	75.1	72.1	79.3	79.8	
위성방송	7.3	7.4	7.2	8.5	6.0	6.0	7.7	8.5	7.8	
IPTV	실시간	13.8	14.2	13.5	14.6	18.8	19.2	15.4	11.6	3.8
	VOD	11.1	11.4	10.7	11.3	14.8	15.3	12.4	9.4	3.2
DMB	지상파	22.2	26.8	17.8	25.0	37.5	30.4	25.5	13.9	2.5
	위성	2.1	2.3	2.0	2.2	2.9	3.6	2.4	1.4	0.2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 1) 지상파방송 이용률=3달에 1일 이상 지상파방송 이용자/총 사람 수(6,669명)
- 2) 케이블방송/IPTV/위성방송 이용률=최근 일주일간 이용자/총 사람 수(6,669명)
- 3) DMB 미디어별 이용률=각 미디어를 3달에 1일 이상 이용한 사람/총 사람 수(6,669명)

특기할 만한 점은 IPTV를 시청하는 비율이 위성방송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점, 그리고 지상파 DMB 시청 비율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IPTV는 인터넷, 전화(VoIP)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인 TPS(Triple Play Service)가 가진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장점으로 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특히 통신사들이 모기업인 IPTV는 스마트폰 이용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기존의 3가지 서비스에 자사의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 시 요금이 절감되는 QPS(Quadruple Play Service)도 제공하고 있어 보다 고객 확보와 수익 증대에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상파 DMB의 경우는 휴대기기의 보편화에 따른 DMB 시청으로 주로 대중교통 이동시 시청 비율로 볼 수 있는데, 고성능 스마트폰의 이용 증가가 지상파 DMB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고성능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시청 등으로 DMB 이용 비율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늘어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역으로 DMB 시청이 늘어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지상파방송 시청자 비율

앞서 <표 4-1-1>에서 보면 지상파방송의 시청자 비율은 97.2%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의 97.2%가 지난 3개월 간 적어도 한번은 지상파방송의 채널을 시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응답자의 거의 모두가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표 4-1-2 2011년 지상파방송 시청자 비율 총괄표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응답자(명)	6,481	3,171	3,309	717	985	1,231	1,285	1,046	1,217
비율(%)	100	48.9	51.1	11.1	15.2	19.0	19.8	16.1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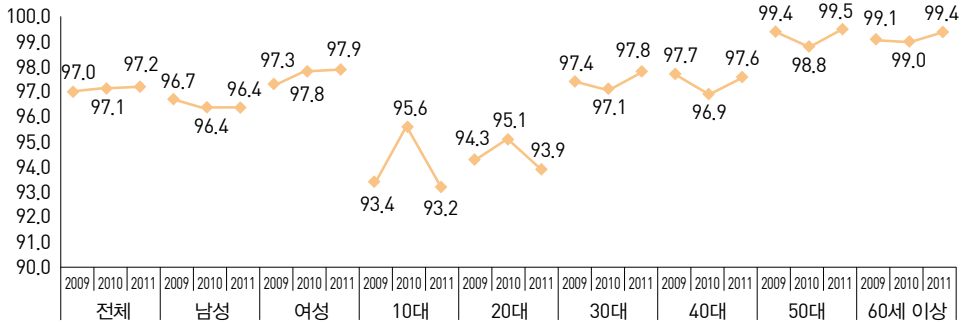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방송은 지상파라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상파방송을 시청한다고 답한 응답자 6,481명 중 남녀의 시청자 비율은 각각 48.9%, 51.1%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시청자 비율이 약간 높았다(〈표 4-1-2〉). 연령 별로는 40대가 1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10대가 11.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즉, 시청자 비율은 10대에서 40대까지 연령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50대에서 줄어들고 60세 이상에서 다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그림 4-1-1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지상파방송 시청자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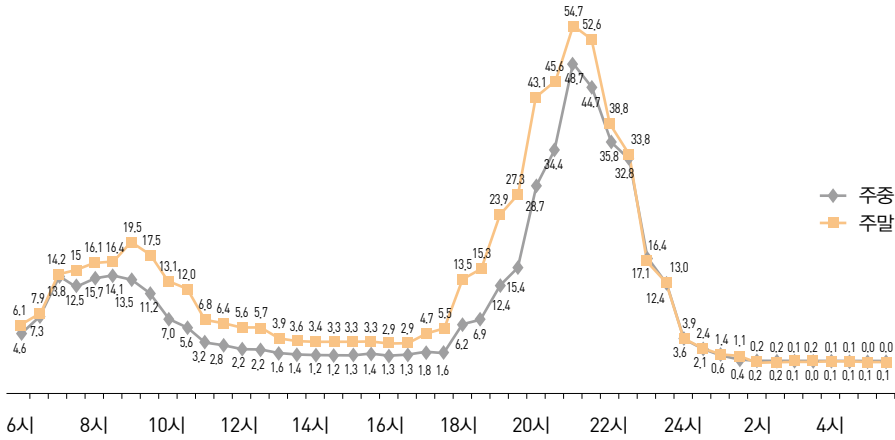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97.0	96.7	97.3	93.4	94.3	97.4	97.7	99.4	99.1
2010	97.1	96.4	97.8	95.6	95.1	97.1	96.9	98.8	99.0
2011	97.2	96.4	97.9	93.2	93.9	97.8	97.6	99.5	99.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3) 〈표 4-1-2〉 '총괄표'의 수치(%)들은 지상파방송을 시청한다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산출된 것으로, 응답자들의 중복 응답이 배제된 값이라 〈표 4-1-1〉에서의 수치와는 다르고, 비교가 어렵다. 이후에 소개될 각 미디어의 '총괄표'에 있는 수치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미디어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내에서의 백분위(100%) 비율이며,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림 4-1-2 지상파방송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

(단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지상파방송의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조사결과를 보면(〈그림 4-1-1〉)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지상파방송의 시청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남성은 소폭 감소(0.3%)한 반면 여성의 시청자 비율은 소폭 증가(0.6%)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증가하였다가 2011년도에 다시 감소하였지만, 30대 이상은 2009년보다 2010년에 감소하였다가 2011년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연령층, 즉 10대와 20대에서 최대 2.2%로 증가폭이 비교적 컸고 최대 2.4%로 감소폭 또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한편,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4-1-2〉), 주중 지상파방송 시청자 비율은 21시부터 21시 30분까지의 시간대에서 48.7%로 가장 높았는데, 이 시간대 지상파방송의 시청자 비율은 다른 미디어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오전은 8시 30분에서 9시 시간대가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말의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 역시 전반적으로 다른 미디어들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21시부터 21시 30분까지가 54.7%로 가장 높았고, 오전은 9시에서 9시30분 사이의 시청자 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0대와 20대의 경우 주중에 지상파방송을 이용하는 비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3시 이후에는 타 연령대보다 높아 젊은 층의 지상파방송 주 시청시간이 심야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⁵⁾

4) 〈그림 4-1-1〉의 수치(%)들은 〈표 4-1-1〉과 마찬가지로, 중복응답이 가능한 상황에서 산출된 것이다. 이후에 소개될 각 미디어의 2009년~2011년 시청자 비율 변화를 나타낸 그림들에서 제시되는 수치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표 4-1-2〉와 같이 제시되는 '총괄표'의 수치들과 다르며 비교가 어렵다.
5) 〈그림 4-1-2〉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의 수치(%)들 역시 〈표 4-1-2〉 '총괄표'와 마찬가지로 지상파방송

3 케이블방송 시청자 비율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비율은 75.2%로 지상파방송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표 4-1-1〉), 이는 전체 응답자 중 케이블방송을 최근 1주일 동안 최소한 한번 이상 시청한 사람이 75.2%에 달한다는 뜻이다. 케이블방송을 시청한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보면(〈표 4-1-3〉), 남성이 48.7%, 여성이 51.3%로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0대가 10.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비율도 10대에서 40대까지 늘었다가 50대에서 조금 감소한 후 60세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케이블방송에 대한 최근 3년간(2009년~2011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그림 4-1-3〉) 전체적으로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남성이 5.9%, 여성이 4.6% 감소하여 남성이 조금 더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도 마찬가지로 시청자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10대는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4.3%가 증가했지만, 2011년에는 다시 9.2%가 크게 감소하여 연령대 중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량을 보였다. 또한 50대와 60세 이상은 3년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가장 높은 시청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TV 시청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지속적인 시청자 비율 감소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영상물’ 소비가 가능한 미디어가 지상파와 케이블 등 전통적 미디어에서 개인용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기타 모바일 기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방송통신 이용행태 조사」의 응답자들은 신규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TV 이용 시간이

표 4-1-3 2011년 케이블방송 시청자 비율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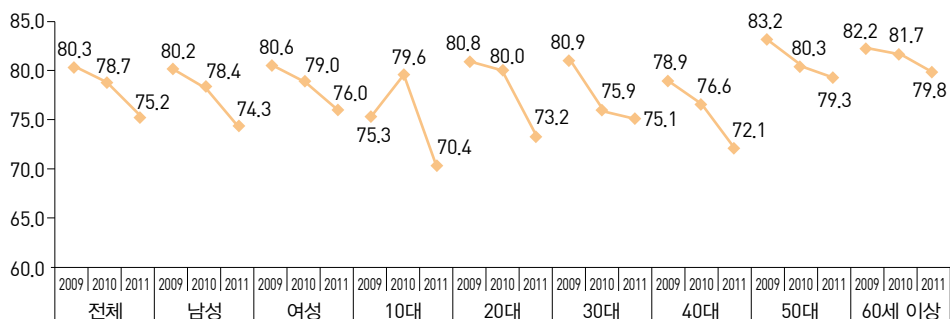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응답자(명)	5,014	2,443	2,571	541	768	945	949	833	977
비율(%)	100	48.7	51.3	10.8	15.3	18.8	18.9	16.6	19.5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을 시청한다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산출된 것으로, 응답자들의 중복 응답이 배제된 값이라 〈표 4-1-1〉, 〈그림 4-1-1〉에서의 수치와 차이가 있고 비교도 어렵다. 이후에 소개될 각 미디어의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에 있는 수치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미디어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내에서의 시청자 비율이며,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림 4-1-3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케이블방송 시청자 비율 변화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80.3	80.2	80.6	75.3	80.8	80.9	78.9	83.2	82.2
2010	78.7	78.4	79.0	79.6	80.0	75.9	76.6	80.3	81.7
2011	75.2	74.3	76.0	70.4	73.2	75.1	72.1	79.3	79.8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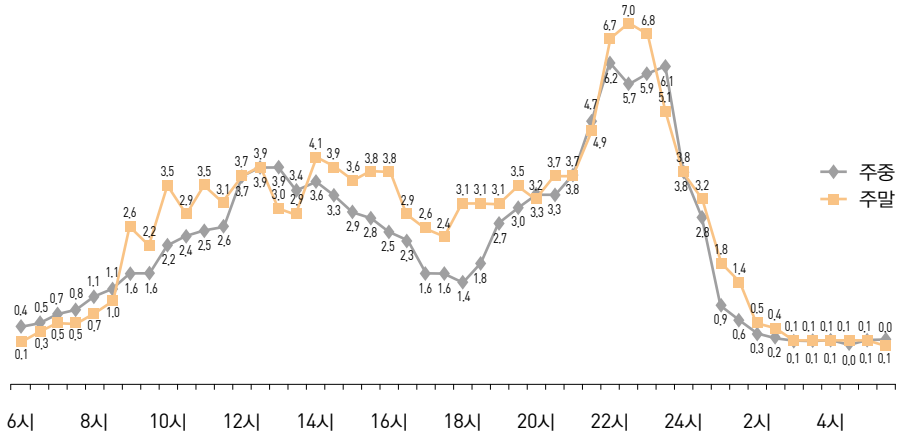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0%였으며, 특히 20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경우 TV로부터의 이탈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폰 비이용자들에 비해 이탈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미디어들은 선형적 시청, 즉 ‘본방 사수’의 개념이 아니라 비선형적 시청에 더 강점이 있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점차 선형적 시청 위주인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비율은 줄고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시청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케이블방송의 지속적인 시청자 비율 감소는 위성방송을 제치고 급격하게 성장해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을 위협하고 있는 IPTV가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최근 3년 간 IPTV의 시청자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케이블방송의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4-1-4), 주중은 22시부터 22시 30분까지의 시청자 비율이 6.2%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상파방송의 이용률과 차이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그 외 미디어들보다는 높았다. 주말은 22시 30분부터 23시까지가 7.0%로 자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케이블방송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의 특징은 주중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그리고 자정 이후부터의 시간대에서 지상파방송보다 시청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말에도 낮 시

그림 4-1-4 케이블방송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

(단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간대 시청자 비율이 지상파방송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자정 이후부터는 주중과 마찬가지로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청패턴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의 타깃이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중파인 지상파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즉 아침, 저녁 뉴스, 프라임 타임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시청자들을 모으고 있고, 반면에 케이블방송은 지상파방송의 주요 프로그램이 끝난 시간대, 시청자들이 분산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각 채널별 특성에 부합하는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성방송 시청자 비율

〈표 4-1-1〉에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일주일에 단 한번 이상 위성방송을 시청한 사람의 비율은 7.3%로 나타났으며,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그리고 IPTV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성방송을 시청한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남녀 모두 49.9%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표 4-1-4〉). 시청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20.9%)로 나타났고, 50대(18.2%)와 60세 이상(19.4%)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연령대는 20대(12.9%)였고, 10대(13.3%)와 30대(15.3%)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위성방송의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시청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그림 4-1-5〉),

표 4-1-4 2011년 위성방송 시청자 비율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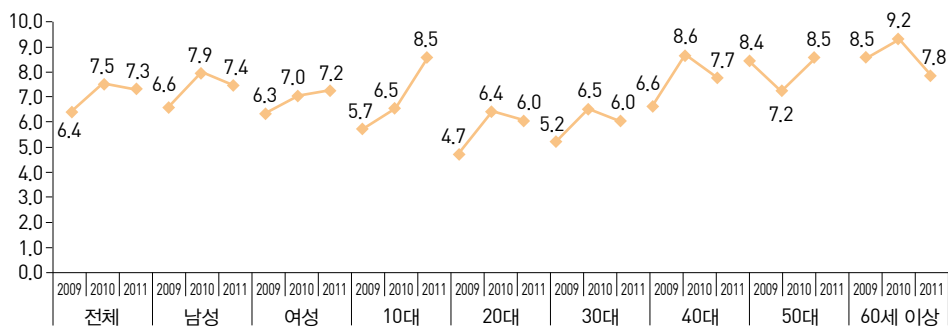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응답자(명)	489	244	244	65	63	75	102	89	95
비율(%)	100	49.9	49.9	13.3	12.9	15.3	20.9	18.2	19.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1.1% 소폭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다시 0.2%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시청자 비율은 2010년에 1.3% 증가하고 2011년엔 0.5% 감소한 반면, 여성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0.7%, 0.2%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50대를 제외하면 모두 2009년~2010년에 시청자 비율이 증가했으나 2010년~2011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0대에서 2010년~2011년 사이에 2.8%(2010년 0.8%, 2011년 2.0%) 시청자 비율 증가세를 보여 가장 많은 변화량을 보였다. 50대의 비율은 2009년의 8.4%에서 2010년에 7.2%로 1.2%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 다시 1.3% 증가하며 8.5%로 2009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위성방송의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4-1-6〉) 주중 23시에서 24시 사이, 주말 22시에서 23시 사이에 시청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최고치가 각각

그림 4-1-5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위성방송 시청자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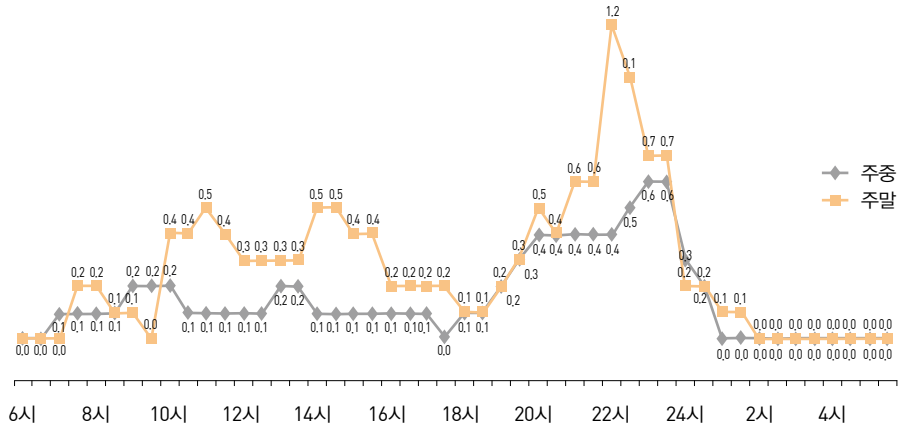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6.4	6.6	6.3	5.7	4.7	5.2	6.6	8.4	8.5
2010	7.5	7.9	7.0	6.5	6.4	6.5	8.6	7.2	9.2
2011	7.3	7.4	7.2	8.5	6.0	6.0	7.7	8.5	7.8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그림 4-1-6 위성방송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

(단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0.6%와 1.0~1.2%로 나타나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보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시청자 비율과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에서 나타난 대로, 위성방송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2011년에서 2012년 상반기 동안 위성방송은 KT와 합작해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시 모양의 수신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케이블 업계의 강한 반발로 DCS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 판결을 받는 등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5 IPTV 시청자 비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서 IPTV의 시청자 비율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실시간 방송이 13.8%, VOD 서비스가 11.1%의 시청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거의 비슷했지만 실시간 방송의 이용률이 VOD 서비스보다 조금 더 높았다(〈표 4-1-1〉). IPTV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실시간 방송 이용자 수가 VOD 이용자 수 보다 많았는데, 유료서비스가 많은 VOD 이용자 수가 실시간 방송 이용자의 79.8% 수준에 이르고 있어 IPTV 사업에서 VOD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4-1-5〉). 한편, IPTV 시청자들 중에서, 실시간 방송은 남녀 각각 50.6%, 49.4%, VOD 서비스는 남녀 각각 50.7%, 49.3%의 시청자 비율이 나타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

표 4-1-5 2011년 IPTV 시청자 비율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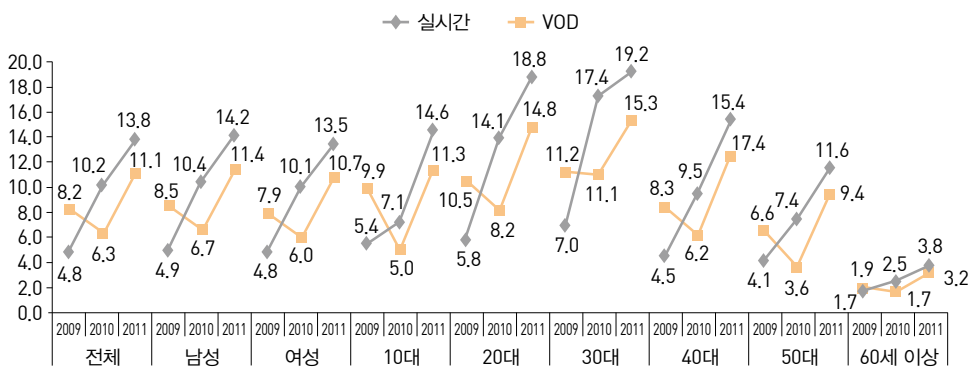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응답자(명)	923	467	456	112	197	242	203	122	47
실시간 IPTV 비율(%)	100	50.6	49.4	12.1	21.3	26.2	22.0	13.2	5.1
응답자(명)	737	374	363	87	155	193	163	99	39
IPTV VOD 비율(%)	100	50.7	49.3	11.8	21.0	26.2	22.1	13.4	5.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었다. 연령별로도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의 시청자 비율은 유사했는데, 30대가 가장 높았고 40대, 20대, 50대, 10대의 순이었으며 6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

한편, IPTV의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 시청자 비율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그림 4-1-7〉), 먼저 실시간 방송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약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증

그림 4-1-7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IPTV 시청자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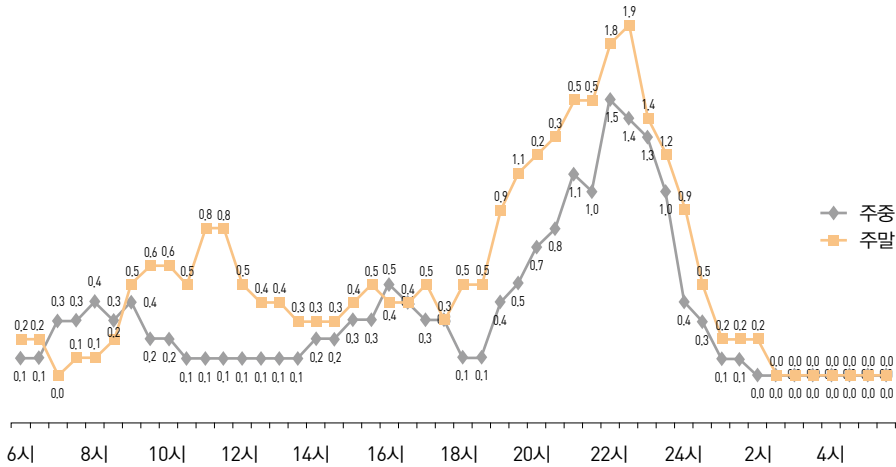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실시간	2009	4.8	4.9	4.8	5.4	5.8	7.0	4.5	4.1	1.7
	2010	10.2	10.4	10.1	7.1	14.1	17.4	9.5	7.4	2.5
	2011	13.8	14.2	13.5	14.6	18.8	19.2	15.4	11.6	3.8
VOD	2009	8.2	8.5	7.9	9.9	10.5	11.2	8.3	6.6	1.9
	2010	6.3	6.7	6.0	5.0	8.2	11.1	6.2	3.6	1.7
	2011	11.1	11.4	10.7	11.3	14.8	15.3	12.4	9.4	3.2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그림 4-1-8 IPTV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

(단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형태 조사」 재가공

가했고, 여성(8.7%)보다 남성(9.3%)이 조금 더 시청자 비율의 변화가 컸다. 연령별로도 시청자 비율은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20대(13.0%)의 변화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2.1%)이 가장 낮은 변화량을 보였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30대의 증가세가 가장 높았고(10.4%),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10대(7.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시간 방송과 달리, VOD 서비스의 시청자 비율은 전체적으로 2010년은 2009년보다 감소하고,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소폭보다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 2011년의 시청자 비율은 2009년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녀 각각 2010년에 1.8%, 1.9%로 모두 비슷하게 감소하고, 2011년에 4.7%로 똑같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4.3%)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1.3%)이 가장 변화량이 작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10년에 감소한 비율이 가장 낮고, 2011년에 4.2%가 증가한 30대가 15.3%의 시청자 비율로 2011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IPTV 시청자들의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4-1-8〉), 주중과 주말 모두 22시에서 23시 사이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는데 주중은 1.4~1.5%대의 비율을 나타냈고, 주말은 1.8~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⁶⁾

6) IPTV의 시간대별 시청자 비율은 Qook TV, 브로드앤 TV, My LG TV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이용을 나타내며, 실시간, VOD 이용을 포함한다.

6 DMB

위 <표 4-1-1>에서 보면, 전체 응답자 대비 DMB의 시청자 비율이 지상파 DMB는 22.2%, 위성 DMB는 2.1%로 나타났다. 지상파와 위성 DMB 간의 차이는 상당히 컸고, 위성 DMB는 조사된 전체 미디어 중 가장 낮은 시청자 비율을 기록했다. 아래 <표 4-1-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에서 위성 DMB는 지상파 DMB의 9.5% 수준에 머물고 있다.

DMB 시청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지상파 DMB의 경우 남성은 59.4%, 여성은 40.6%의 비율을 나타냈고, 위성 DMB의 경우 남성은 52.5%, 여성은 47.5%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게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지상파 DMB의 경우 20대가 26.5%로, 위성 DMB는 30대가 31.9%로 시청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상파 DMB와 위성 DMB 모두 60세 이상의 시청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DMB의 지상파 DMB와 위성 DMB 시청자 비율에 대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지상파 DMB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증가(4.7%)하였고, 남성과 여성도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3.4%)보다 남성(5.9%)이 조금 더 증가량이 많았다(<그림 4-1-9>). 연령별로도 5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시청자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50대는 2010년에 증가하였지만 2011년에는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은 2010년에 증가하였지만 2011년에는 변화가 없었다. 2009년과 2011년 사이의 변화 폭은 20대(9.6%)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1.2%)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2009년에서 2010년의 변화는 30대(5.9%)에서 가장 컸고, 2010년에서 2011년의 변화량은 20대(6.0%)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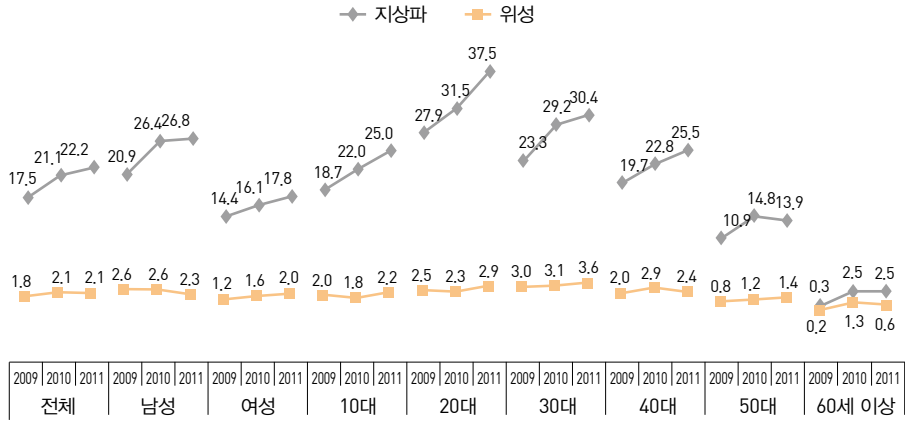
위성 DMB의 시청자 비율은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 살

표 4-1-6 2011년 DMB 시청자 비율 총괄표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상파 DMB 응답자(명)	1,482	880	602	192	393	383	336	146	31
지상파 DMB 비율(%)	100	59.4	40.6	13.0	26.5	25.8	22.7	9.9	2.1
위성 DMB 응답자(명)	141	74	67	17	30	45	32	15	2
위성 DMB 비율(%)	100	52.5	47.5	12.1	21.3	31.9	22.7	10.6	1.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그림 4-1-9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DMB 시청자 비율 변화 (단위: %)



구분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상파	2009	17.5	20.9	14.4	18.7	27.9	23.3	19.7	10.9	1.3
	2010	21.1	26.4	16.1	22.0	31.5	29.2	22.8	14.8	2.5
	2011	22.2	26.8	17.8	25.0	37.5	30.4	25.5	13.9	2.5
위성	2009	1.8	2.6	1.2	2.0	2.5	3.0	2.0	0.8	0.3
	2010	2.1	2.6	1.6	1.8	2.3	3.1	2.9	1.2	0.6
	2011	2.1	2.3	2.0	2.2	2.9	3.6	2.4	1.4	0.2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가공

퍼보면 남성은 2010년에 변화가 없었고, 2011년에 0.3% 감소하였으며, 여성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0.4%씩 증가하였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시청자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별 시청자 비율을 보면 30대와 50대는 소폭 증가하였고, 10대와 20대는 2010년에 감소하고 2011년에 증가하였으며, 40대와 60세 이상은 2010년에 증가하고 2011년에 감소하였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증감 폭은 30대와 50대가 0.6%로 가장 넓었고, 60세 이상이 0.1% 하락으로 가장 좁았으며, 30대는 3년간 가장 높은 시청 비율을 보인 반면 60세 이상은 3년간 가장 낮은 시청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타 미디어와 시청자 확보 경쟁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위성 DMB는 결국 2012년 8월 31일을 끝으로 사업자인 SK텔레콤가 제출한 사업 종료 신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아들임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다.

제 2 절 미디어별 시청시간

1 지상파방송 시청시간

2011년 지상파방송 시청자들의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주중 121분, 주말 159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미디어들 중에서 가장 시청시간이 길었다(〈표 4-1-7〉).

성별에 따라서도 남녀 모두 주말 시청시간이 주중보다 더 길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주중과 주말 모두 시청시간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시청시간은 주중에 남성은 108분, 여성은 133분, 주말에 남성은 149분, 여성은 168분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간의 주중과 주말 시청시간 차이는 각각 25분과 19분으로 주말보다 주중에 더 컸고, 남성과 여성 내에서 주중과 주말의 시청시간 차이는 남성이 41분, 여성이 35분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컸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시청시간이 주중 174분, 주말 191분으로 가장 많았고, 10대의 시청시간은 각각 주중 73분, 주말 124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주중은 주말에 비해 연령별 시청시간의 차이가 비교적 컸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상파방송 시청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연령대별 시청시간도 모두 주중보다 주말이 더 많았고 주중과 주말의 시청시간 차이가 가장 큰 연령은 10대로 주중보다 주말에 51분을 더 시청하였고, 60세 이상은 그 차이가 17분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지난 2009년~2011년, 즉 최근 3년간의 지상파방송 시청시간을 비교해보면(〈그림 4-1-10〉), 우선 전반적인 시청시간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주중은 2010년에 변화가 없었지만 2011년에 소폭 증가하였고, 주말은 2010년에 감소하였지만 2011년에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시청시간은 주중과 주말 각각 2010년에 1분과 5분씩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7분과 14분씩 증가하였다. 여성의 주중 시청시간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분과 13분 증가하였고, 주말은 2010년에 2분 감소하였지만 2011년에 19분 증가하였다. 한편 지난 3년간 여성의 시청시간은 모두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2011년 성별, 연령별 지상파방송 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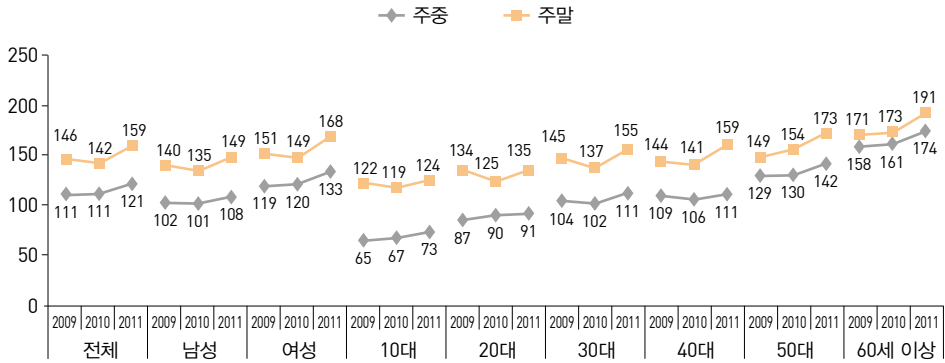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주중	121	108	133	73	91	111	111	142	174
주말	159	149	168	124	135	155	159	173	191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그림 4-1-10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지상파방송 시청시간 변화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주중	111	102	119	65	87	104	109	129	158
	주말	146	140	151	122	134	145	144	149	171
2010	주중	111	101	120	67	90	102	106	130	161
	주말	142	135	149	119	125	137	141	154	173
2011	주중	121	108	133	73	91	111	111	142	174
	주말	159	149	168	124	135	155	159	173	191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중 시청시간은 2010년의 경우 2009년 비해 30대와 40대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모든 연령대가 증가하였다. 주말 시청시간은 2010년에는 2009년보다 5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시간의 증가폭은 주중과 주말 각각 60세 이상이 16분, 50대가 24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2011년 지상파방송 시청시간을 보면(〈표 4-1-8〉), 주중은 대구/경북 지역이 134분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제주가 85분으로 가장 낮았으며, 주말은 경기/인천 지역

표 4-1-8 2011년 지역별 지상파방송 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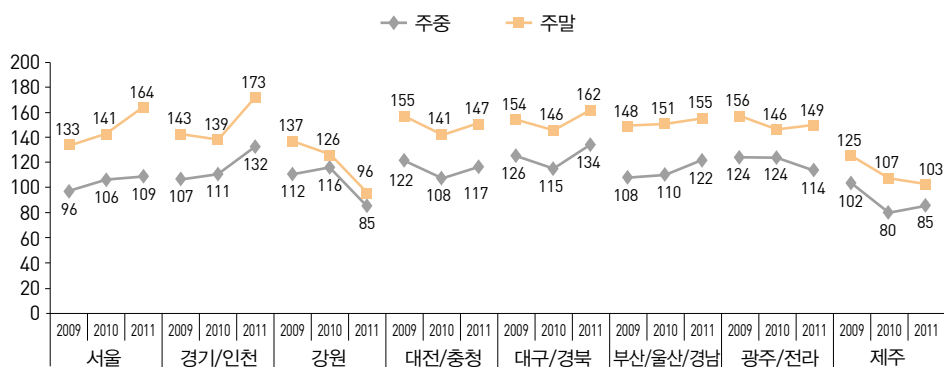
(단위: 분)

	서울	경기/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주중	109	132	85	117	134	122	114	85
주말	164	173	98	147	162	155	149	10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그림 4-1-11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지역별 지상파방송 시청시간 변화

(단위: 분)



		서울	경기/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2009	주중	96	107	112	122	126	108	124	102
	주말	133	143	137	155	154	148	156	125
2010	주중	106	111	116	108	115	110	124	80
	주말	141	139	126	141	146	151	146	107
2011	주중	109	132	85	117	134	122	114	85
	주말	164	173	98	147	162	155	149	10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이 173분으로 가장 시청시간이 많았고, 강원이 98분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모든 지역의 시청시간은 주중보다 주말이 높게 나타났고, 강원 지역이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13분으로 가장 적었으며, 서울 지역이 55분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지역별 지상파방송 시청시간을 비교하면(〈그림 4-1-11〉), 주중은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시청시간이 증가하였고 광주/전라 지역은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의 경우 강원과 광주/전라 지역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증가하였다. 주말은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강원과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시청시간 변화는 강원 지역의 시청시간 변화가 주중 27분, 주말 39분으로 그 폭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2 케이블방송 시청시간

2011년 케이블방송 시청자들은 하루 평균 주중 60분, 주말 80분씩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남성의 평균 시청시간은 주중 53분, 주말 78분이고, 여성은 주중 66분, 주말 82분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시청시간이 조금 더 길었다. 주중과 주말의 시청시간 차이는 남녀 각각 25분, 16분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차

표 4-1-9 2011년 성별, 연령별 케이블방송 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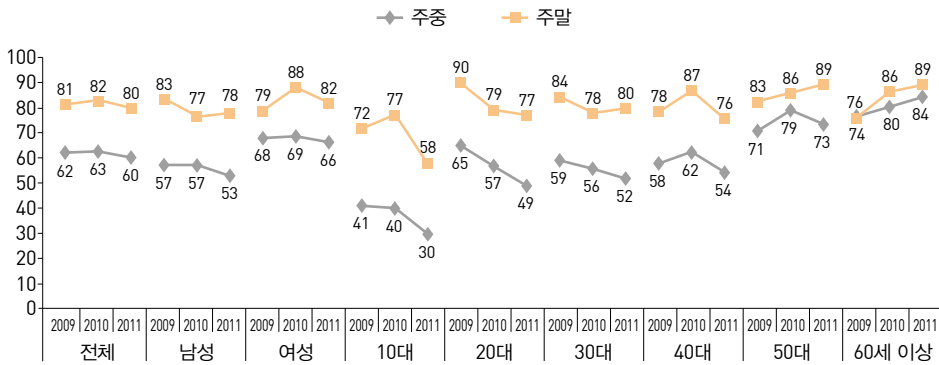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주중	60	53	66	30	49	52	54	73	84
주말	80	78	82	58	77	80	76	89	89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그림 4-1-12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케이블방송 시청시간 변화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주중	62	57	68	41	65	59	58	71	76
	주말	81	83	79	72	90	84	78	83	74
2010	주중	63	57	69	40	57	56	62	79	80
	주말	82	77	88	77	79	78	87	86	86
2011	주중	60	53	66	30	49	52	54	73	84
	주말	80	78	82	58	77	80	76	89	89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케이블방송의 시청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은 60세 이상이 84분으로, 주말은 50대와 60세 이상이 89분으로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 10대가 주중 30분, 주말 58분으로 가장 적게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그림 4-1-12〉), 전체적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2009년도에 비해 2010년에 조금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 다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주중과 주말 모두 2009년에 비해 2011년 시청시간이 감소했고, 여성은 주중은 감소한 반면 주말은 소폭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중은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10대부터 30대는 감소하고 40대에서 60세 이상은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주말은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대와 30대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감소하였다. 한편 주중 시청시간 변화량은 20대가 16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주말 시청시간 변화량은 60세 이상이 15분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시청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케이블방송 시청시간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는데, 2012년의 결과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V 수상기만을 대상으로 할 때 IPTV라는 강력한 도전자가 있고, 그 외에도 인터넷 기반의 여러 유·무선 서비스들이 점차 가입자를 확보해 나가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위성방송 시청시간

2011년 위성방송 시청자들의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주중 68분, 주말 87분으로 나타났다(〈표 4-1-10〉). 주중은 남성이 63분, 여성이 73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0분 더 많이 시청하는 반면, 주말은 남성이 88분, 여성이 86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분 더 시청시간이 많았다.

표 4-1-10 2011년 성별, 연령별 위성방송 시청시간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주중	68	63	73	53	74	63	69	81	65
주말	87	88	86	89	104	78	93	10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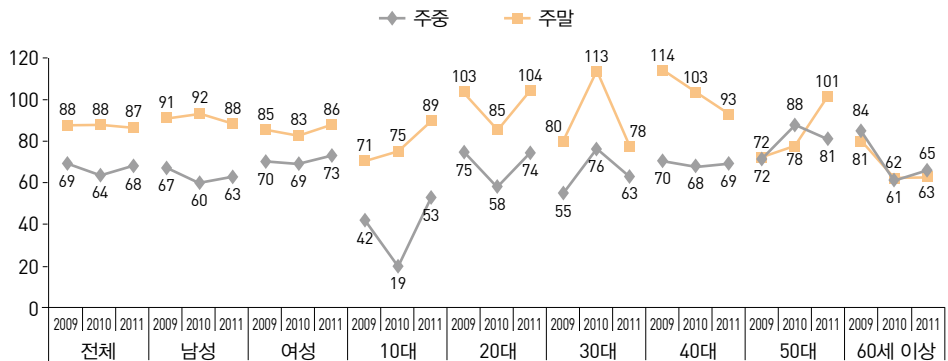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연령별로는 주중에는 50대의 시청시간이 81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에는 20대가 104분으로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시청시간을 보인 연령은 주중의 경우 53분을 시청한 10대이며, 주말은 63분을 시청한 60세 이상의 시청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방송의 시청시간에 대한 최근 3년간(2009년~2011년)의 조사결과를 보면(〈그림 4-1-13〉), 전체적으로 주중은 2010년에 감소하다 2011년에 증가하였고, 주말은 2010년에 변화가 없다가 2011년에 감소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주중에 2009년에 비해 2010년의 시청시간은 감소했지만 2011년에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말에는 남성의 경우 2010년까지는 증가하다 2011년에 감소했고, 여성의 경우 2010년까지 증가하다 2011년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변화는 한마디로 10대의 증가세, 30대의 급격한 감소세, 40대 주말 시청시간의 감소, 주중과 주말 시청시간 변화가 엇갈린 50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중의 경우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3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다가 2011년에는 30대와 50대를 제외

그림 4-1-13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위성방송 시청시간 변화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주중	69	67	70	42	75	55	70	72	84
	주말	88	91	85	71	103	80	114	72	81
2010	주중	64	60	69	19	58	76	68	88	61
	주말	88	92	83	75	85	113	103	78	62
2011	주중	68	63	73	53	74	63	69	81	65
	주말	87	88	86	89	104	78	93	101	6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주말은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대, 40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30대와 40대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주중 시청시간 변화량은 60세 이상이 19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주말 시청시간 변화량은 50대가 29분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4 IPTV 시청시간

2011년 IPTV의 시청시간은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시청자들은 하루 평균 IPTV 실시간 방송을 주중 44분, 주말 63분 시청하고, VOD 서비스를 주중 21분, 주말 31분 시청하고 있었다(〈표 4-1-11〉). 구체적으로 실시간 방송의 경우 시청시간은 남성은 주중 39분, 주말 57분이고 여성은 주중 50분, 주말 69분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여성이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D 서비스의 경우 시청시간은 남성은 주중 19분, 주말 30분이고 여성은 주중 24분, 주말 31분으로 실시간 방송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이 시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에 비해 VOD 서비스 시청시간의 남녀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실시간 방송의 경우 주중은 60세 이상이 74분, 주말은 40대가 86분으로 시청시간이 가장 높았고, VOD 서비스의 경우 주중은 50대가 28분, 주말은 20대가 38분으로 시청시간이 가장 길었다.

2009년~2011년 최근 3년간의 IPTV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 조사결과를 보면(〈그림 4-1-14〉), 전체적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1년에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주중에 2009년에 비해 2010년의 시청시간이 감소했지만 2011년에는 증가하였고, 주말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10년 감소하다 남성은 2011년에도 감소하지만 여성은 2011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중은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4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다가 2011년에는 5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주말도

표 4-1-11 2011년 성별, 연령별 IPTV 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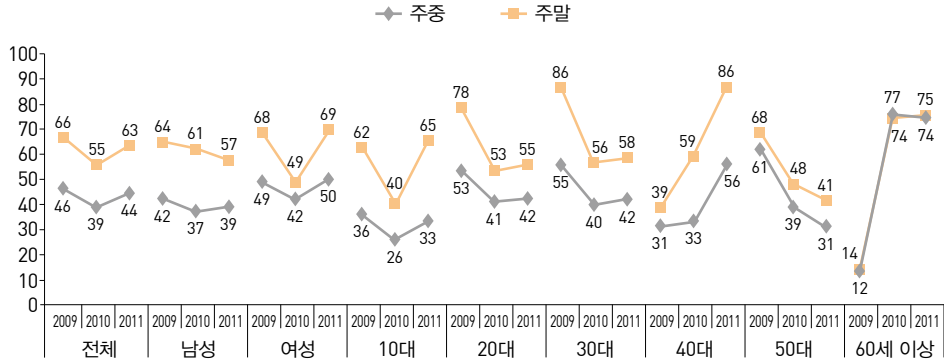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실시간	주중	44	39	50	33	42	42	56	31	74
	주말	63	57	69	65	55	58	86	41	75
VOD	주중	21	19	24	13	26	24	16	28	12
	주말	31	30	31	23	38	28	33	34	17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그림 4-1-14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IPTV-실시간 시청시간 변화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주중	46	42	49	36	53	55	31	61	12
	주말	66	64	68	62	78	86	39	68	14
2010	주중	39	37	42	26	41	40	33	39	77
	주말	55	61	49	40	53	56	59	48	74
2011	주중	44	39	50	33	42	42	56	31	74
	주말	63	57	69	65	55	58	86	41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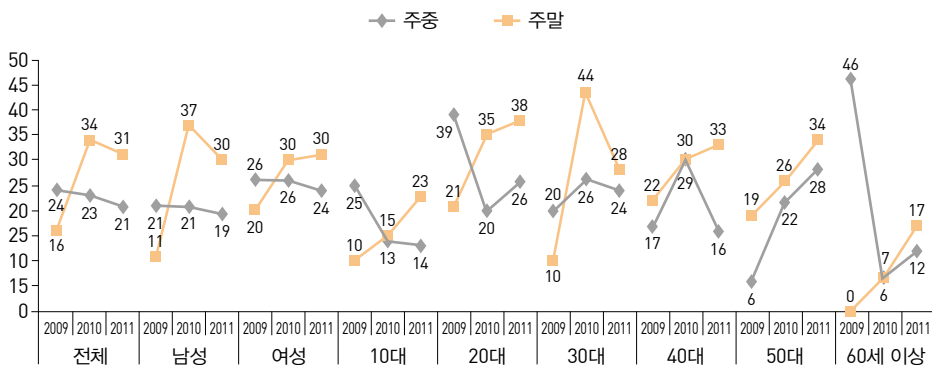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4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50대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40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시청시간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했으며 특히 주말 시청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50대의 경우 2009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60대의 경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IPTV 시청시간이 매우 급격히 늘었고, 2011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주중 시청시간 변화량은 60세 이상이 62분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주말 시청시간 변화량 역시 60세 이상이 61분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IPTV 시청자 비율과 시청시간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시청자 비율은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시청시간은 40대와 60세 이상의 시청자들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즉, 여전히 IPTV는 40대 이하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60세 이상 노년층의 시청시간 증가는 노년층들이 IPTV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점차 적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청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한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IPTV 시청자 비율은 지난 3년간 실시간과 VOD 이용 모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림 4-1-15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IPTV-VOD 시청시간 변화

(단위: 분)



구분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주중	24	21	26	25	39	20	17	6	46
	주말	16	11	20	10	21	10	22	19	0
2010	주중	23	21	26	14	20	26	29	22	6
	주말	34	37	30	15	35	44	30	26	7
2011	주중	21	19	24	13	26	24	16	28	12
	주말	31	30	31	23	38	28	33	34	17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IPTV VOD의 최근 3년간 시청시간을 보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약간의 감소세에 있으며, 특히 남성들의 VOD 이용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15〉). 여성의 경우는 주말 VOD 이용은 약간 증가, 주중은 약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의 추이를 보면, IPTV VOD 이용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1년의 하락세는 30대를 제외하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선에서 멈추고 있다. 이는 콘텐츠 부재 등으로 서비스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던 초기를 지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VOD 서비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청자 비율과 시청시간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40대 이상의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중은 2010년에 감소하다 2011년에도 계속 감소하였고, 주말은 2010년 증가하다 2011년에는 감소하였다. 주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09년과 2010년의 시청시간은 변화가 없었지만 2011년에는 감소하였고, 주말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10년 증가하다 남성은 2011년에도 감소했지만 여성은 2011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중은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30대, 40대, 50대는 모두 증

가하고 10대와 20대는 비교적 큰 감소세를 보였고, 2011년에는 2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다. 주말은 30대를 제외하고 2010년과 2011년 모두 2009년에 비해 계속 증가하였으며, 30대만 2010년에 증가하다 2011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중 시청시간 변화량은 60세 이상이 34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주말 시청시간 변화량은 30대가 18분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5 DMB 시청시간

2011년 DMB 시청자들의 평균 DMB 시청시간을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각각 구분하여 보면(〈표 4-1-12〉), 지상파 DMB의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주중 35분, 주말 20분으로 나타났고, 위성 DMB의 시청시간은 주중 30분, 주말 31분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상파 DMB의 경우 남성은 주중 36분, 주말 20분, 여성은 주중 32분, 주말 20분으로 주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시청하였고, 주말은 남녀의 시청시간이 동일했다. 위성 DMB의 경우 남성은 주중 35분, 주말 33분, 여성은 주중 25분, 주말 28분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상파 DMB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10대가 각각 37분, 26분으로 하루 평균 DMB를 시청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다. 위성 DMB의 경우 주중은 50대가 39분으로, 주말은 20대가 55분으로 하루 평균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2011년의 최근 3년간 지상파 DMB의 시청시간 조사결과를 보면(〈그림 4-1-16〉), 전체적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큰 변동은 없었다. 주중은 2010년 변화가 없다가 2011년에 1분 감소하였고, 주말은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2011년에는 변화가 없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주중에 감소하는 추세였고, 여성의 주말 시청시간은 2010년보다 2011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중은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10대, 20대, 40대는 감소하거나 같다가,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모두

표 4-1-12 2011년 성별, 연령별 DMB 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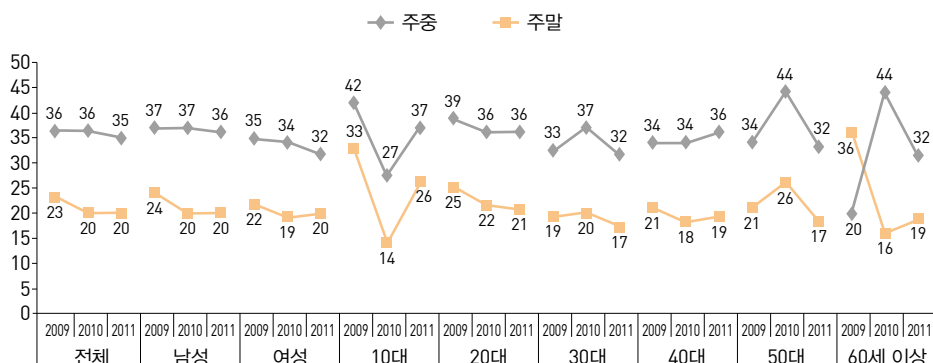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상파 DMB	주중	35	36	32	37	36	32	36	32	32
	주말	20	20	20	26	21	17	19	17	19
위성 DMB	주중	30	35	25	28	31	25	34	39	33
	주말	31	33	28	15	55	34	21	11	3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그림 4-1-16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지상파 DMB 시청시간 변화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주중	36	37	35	42	39	33	34	34	20
	주말	23	24	22	33	25	19	21	21	36
2010	주중	36	37	34	27	36	37	34	44	44
	주말	20	20	19	14	22	20	18	26	16
2011	주중	35	36	32	37	36	32	36	32	32
	주말	20	20	20	26	21	17	19	1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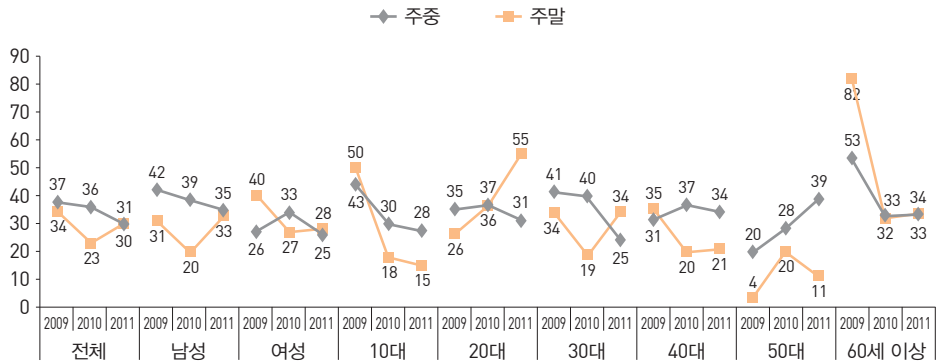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10대, 20대, 40대에서 증가하거나 같고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말도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30대와 50대는 증가,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했고, 2011년에는 20대, 30대, 50대에서 감소하고 나머지는 연령대는 증가했다. 한편 주중 시청시간 변화량은 60세 이상이 12분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주말 시청시간 변화량은 60세 이상이 17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령대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주중, 주말 변화 추세가 비슷했지만 60대의 경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주중이 증가, 주말은 감소, 2010년~2011년 사이에는 주중의 감소와 주말의 증가 등으로 엇갈렸다.

한편, 최근 3년간의 위성 DMB 시청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2009년에서 2010년간 주중과 주말 시청시간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주중은 2011년에도 감소한 반면 주말은 2011년에는 증가하였다(〈그림 4-1-17〉). 성별로 살펴보면, 주중은 남성의 시청시간이 2009년~2011년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성의 시청시간은 2009년~2010년에는 증가하다 2011년에 감소하였다. 주말 시청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10년까지 감소

그림 4-1-17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위성 DMB 시청시간 변화

(단위: 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주중	37	42	26	43	35	41	31	20	53
	주말	34	31	40	50	26	34	35	4	82
2010	주중	36	39	33	30	37	40	37	28	33
	주말	23	20	27	18	36	19	20	20	32
2011	주중	30	35	25	28	31	25	34	39	33
	주말	31	33	28	15	55	34	21	11	3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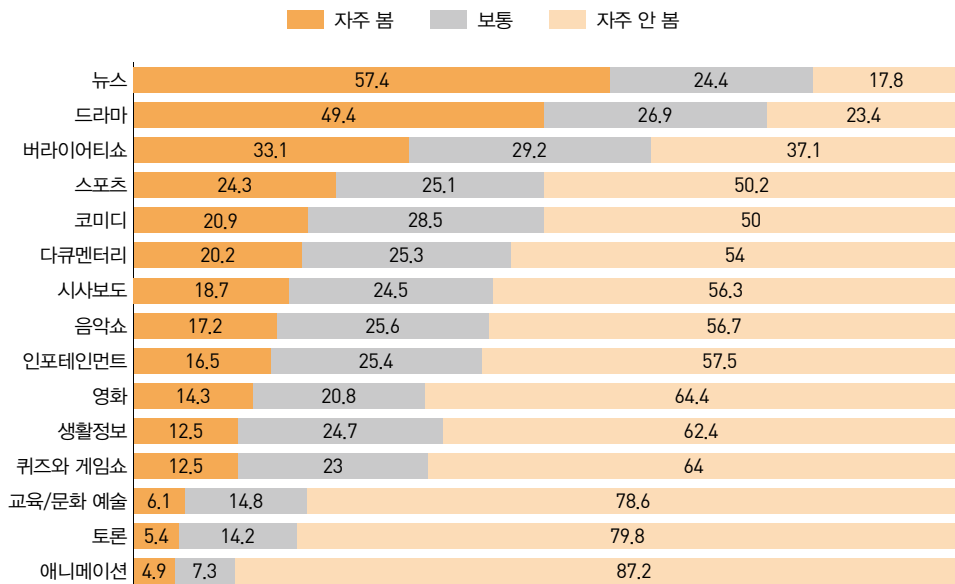
하다 2011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중은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대, 40대, 50대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다 2011년에는 감소세 중 60대 이상만 변화가 없고 나머지는 계속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도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대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증가세 중 10대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주중 시청시간 변화량은 60세 이상이 20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주말 시청시간 변화량은 60세 이상이 48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제 3 절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 행태

1 지상파방송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나타난 2011년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 행태를 살펴보면(〈그림 4-1-18〉), 뉴스를 가장 자주 보고 있었고 그 다음은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코미디, 다큐멘터리, 시사/보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와 드라마의 경우 자주 본다고 답한 비율이 보통과 자주 안 보는 비율보다 높았고, 버라이어티쇼의 경우도 자주 본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 지상파방송이 이 세 가지 장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자주 보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87.2%), 토론, 교육/문화 예술의 프로그램들도 자주 본다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가 약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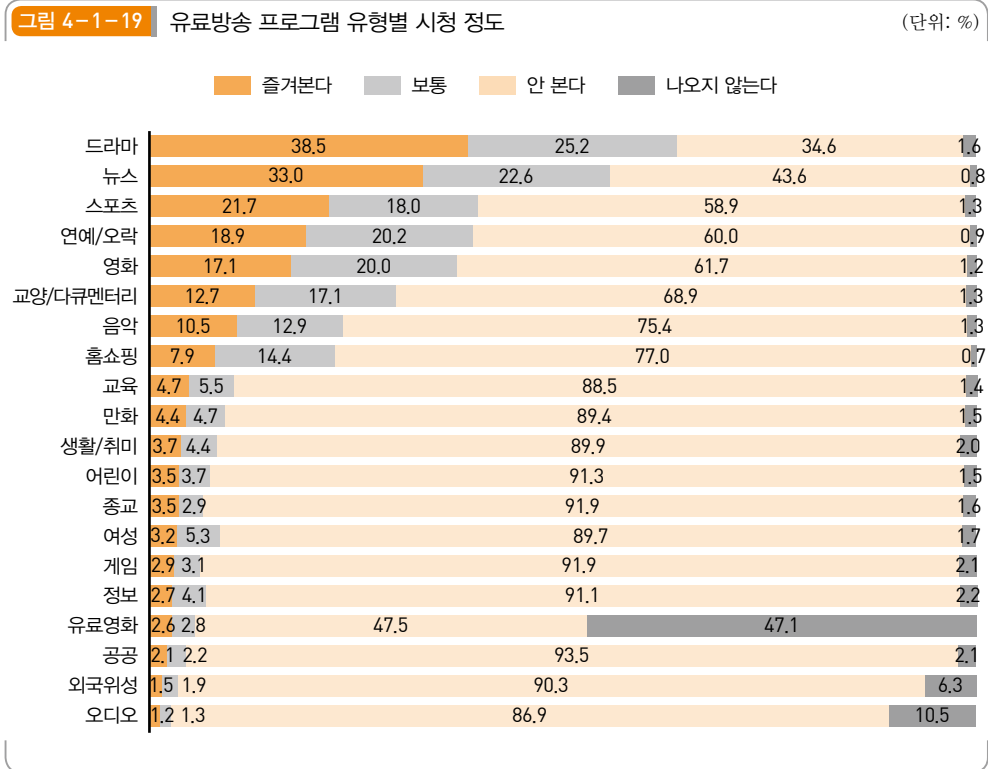
그림 4-1-18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 정도 (단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2 유료방송(케이블방송/위성방송/IPTV)

2011년의 유료방송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 행태를 살펴보면(〈그림 4-1-19〉),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뉴스, 스포츠, 연예/오락, 영화, 교양/다큐멘터리, 음악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방송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안본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가 약함을 알 수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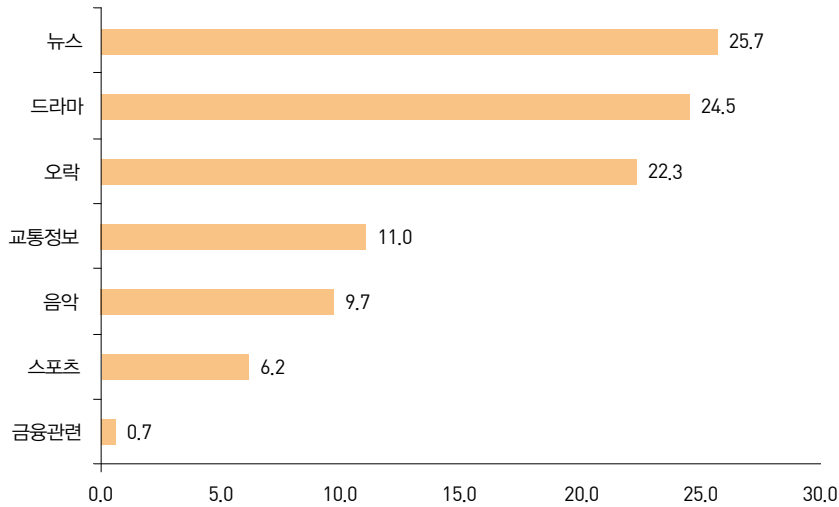
3 DMB

1) 지상파 DMB 시청 프로그램 유형과 시청 행태

2011년 지상파 DMB의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 행태를 살펴보면(〈그림 4-1-20〉), 뉴

그림 4-1-20 지상파 DMB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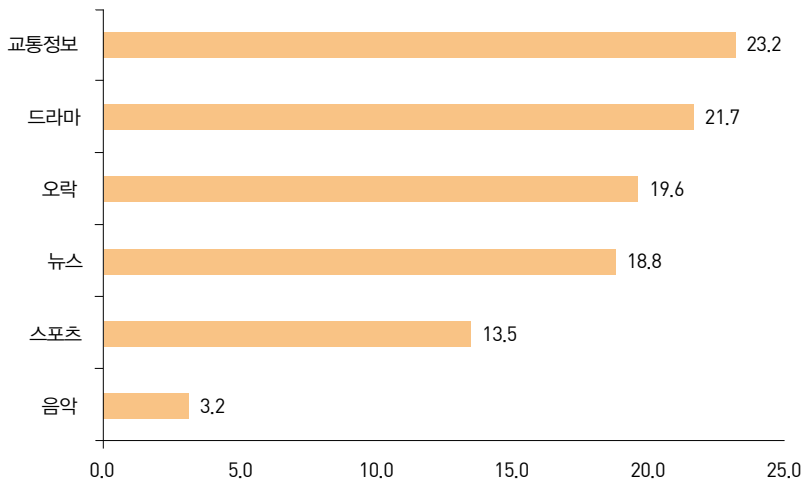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스(25.7%)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드라마(24.5%), 오락(22.3%), 교통정보(11.0%)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금융관련(0.7%) 방송프로그램은 가장 낮은 시청 비율을 보였고 스포츠(6.2%)와 음악(9.7%) 프로그램도 10% 이하의 시청 비율을 보여 시청자들의 선호가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21 위성 DMB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자 비율

(단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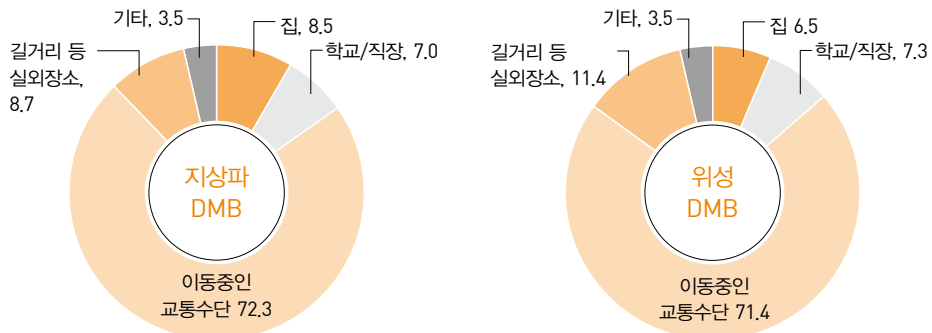
2011년 위성 DMB의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 행태를 살펴보면, 교통정보(23.2%)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21.7%), 오락(19.6%), 뉴스(18.8%), 스포츠(13.5%)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음악(3.2%) 프로그램이 가장 낮은 시청 비율을 보여 시청자들의 선호가 약함을 알 수 있다.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돌 위주의 제작과 홍보로 인해 20대 후반에서 장년, 노년층 시청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DMB 서비스 주 시청 장소

지상파 DMB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이동 중인 교통수단(72.3%)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길거리 등 실외장소(8.7%), 학교/직장(7.0%), 집(8.5%), 기타(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성 DMB도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이동 중인 교통수단(71.4%)이었고, 길거리 등 실외장소(11.4%), 학교/직장(7.3%), 집(6.5%), 기타(3.5%)의 순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4-1-22 지상파 DMB와 위성 DMB 주 시청 장소

(단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재구성



시청률 분석

제4부 방송영상플랫폼 이용 동향

방송영상 플랫폼 시청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시청률 자료를 분석했다.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먼저 전체적인 방송영상 플랫폼의 시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시청자의 시청변화를 살펴 전반적인 시청행위의 변화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요 방송 채널의 시청률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송사별 경쟁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프로그램 시청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채널별로 시청률 상위 10개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 1 절

가구시청률과 개인시청률 동향

연도별 시청률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 11월¹⁾까지의 연도별 시청률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장의 시청률 동향은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4개 방송영상 플랫폼의 시청률을 합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시청자들이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방송영상 플랫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연도별로 어떤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시청률 분석지표는 가구시청률(HUT)과 개인시청률(PUT)을 주로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시청자를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1) 일반적으로 시청률은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12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012년의 시청률을 분석할 경우 12월을 포함했을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2012년 12월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 TV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HUT와 P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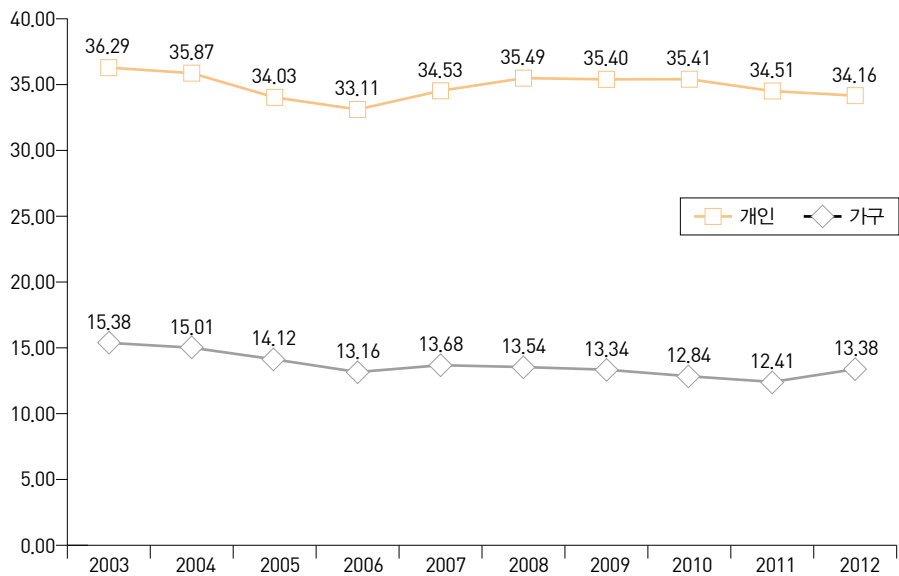
- 시청률 분석에는 크게 가구시청률(HUT: House Using Television)을 이용하는 방법과 개인 시청률(PUT: Person Using Television)이 있다.
 - HUT는 분석단위를 가구로 하여 시청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는 것인 반면,
 - PUT는 가구 구성원 개인의 시청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종합하는 것이다.
- 다시 말해, HUT는 가구 구성원 중 1명 이상의 TV 시청을 측정하며, PUT는 가구 구성원 개 개인의 TV 시청을 측정한 자료다. 따라서 HUT가 PUT에 비해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 연도별 가구시청률과 개인시청률 변화

다음 <그림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가구시청률은 2006년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12년에도 소폭 감소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었다. 반면, 개인시청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되었으나, 2012년에는 시청률이 다소 증가해 200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청률을 조사하기 위해 추정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다소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2-1 연도별 가구시청률과 개인시청률의 변화(2003년~2012년 11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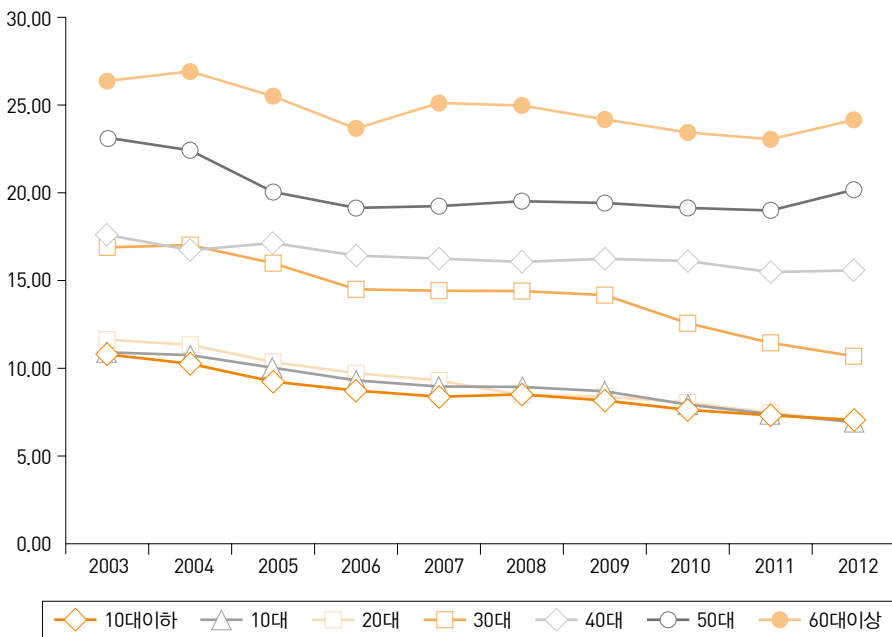


다. 즉, 시청률은 패널을 구성하여 모집단을 추정하는 조사인데, 모집단 추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가구시청률은 감소하는데 개인시청률이 증가하는 것은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1~2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져 전체 비율의 50%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가구 구성원이 적어진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었고, 노령층(50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 개인의 시청비율이 높아져 시청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연령별 개인시청률 동향

그림 4-2-2 연령별 개인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대이하	10.79	10.26	9.24	8.73	8.38	8.51	8.16	7.63	7.32	7.06
10대	10.91	10.75	10.03	9.31	8.96	8.94	8.69	7.93	7.39	6.93
20대	11.63	11.34	10.36	9.72	9.30	8.47	8.39	8.05	7.45	6.98
30대	16.89	17.02	15.99	14.50	14.42	14.40	14.17	12.57	11.45	10.69
40대	17.60	16.73	17.14	16.42	16.25	16.06	16.24	16.11	15.48	15.58
50대	23.14	22.42	20.05	19.14	19.24	19.52	19.42	19.14	18.99	20.17
60대이상	26.37	26.92	25.50	23.66	25.12	24.97	24.18	23.44	23.05	24.15

2003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개인시청률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그림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40대 이상의 시청률은 평균 15%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는 평균 24% 정도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50~60대의 시청률은 2011년~2012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 이하의 시청자는 2003년부터 지속적인 시청률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에도 10대와 함께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주목할 만 한 점은 30대 시청률인데 30대는 2009년까지는 14% 정도의 시청률 기록하다가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2012년에는 10%대에 근접하는 시청률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층의 TV 이탈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9년부터 도입된 스마트폰 또는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대체 효과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기능적 대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TV 시청시간 변화

시청률의 변화는 TV 시청시간의 변화에도 나타나는데, 가구 시청시간의 경우 2003년 월평균 8시간 43분을 시청하던 데서 2006년 약 25분정도 감소한 7시간 57분까지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인 8시간 31분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다시 계속 하락하여 2012년 11월까지 월평균 8시간 12분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12

표 4-2-1 TV 시청시간의 변화(2003년~2012년 11월)²⁾

연도	가구시청률	개인시청률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03	08:43	03:41	02:40	02:22	02:39	03:53	04:04	05:25	06:16
2004	08:37	03:36	02:28	02:20	02:34	03:54	03:50	05:14	06:22
2005	08:10	03:23	02:14	02:09	02:20	03:40	03:56	04:39	06:02
2006	07:57	03:09	02:07	01:59	02:10	03:19	03:44	04:24	05:35
2007	08:17	03:17	02:00	01:56	02:04	03:18	03:42	04:27	05:57
2008	08:31	03:15	02:01	01:56	01:51	03:18	03:39	04:33	05:56
2009	08:30	03:12	01:56	01:52	01:50	03:13	03:40	04:31	05:45
2010	08:30	03:05	01:48	01:43	01:46	02:52	03:41	04:28	05:37
2011	08:17	02:59	01:46	01:36	01:39	02:38	03:34	04:27	05:30
2012	08:12	03:13	01:44	01:30	01:33	02:30	03:38	04:47	0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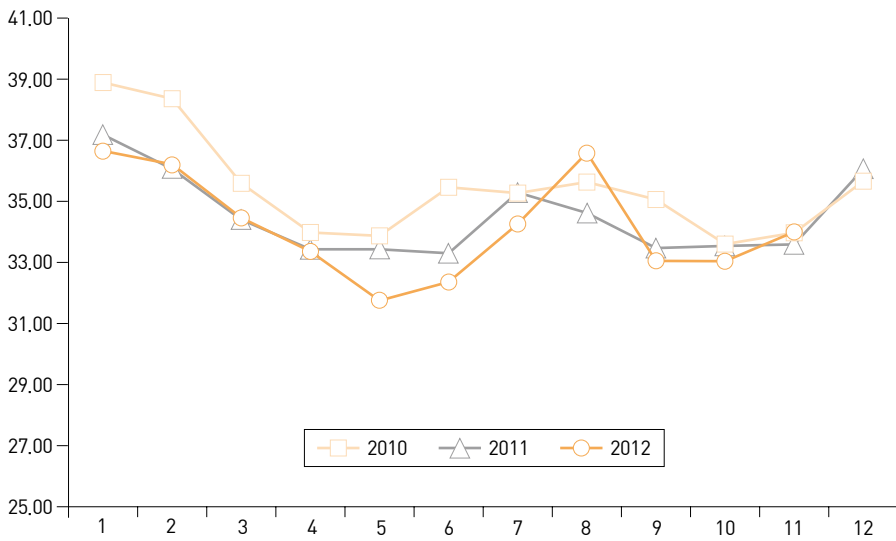
2) 주의: <표 4-2-1> 내의 수치는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월평균 시청시간'의 양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12년 10대의 '01:30'은 10대들이 TV를 월평균 1시간 30분 동안 시청했다는 의미다.

월을 포함한다면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2008년 이후 감소세에 있다. 개인시청률은 2003년 3시간 41분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20분 정도 감소한 3시간 09분, 2011년에는 2시간 59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2년 11월 다시 증가하여 현재 3시간 13분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시간의 변화는 2008년~2012년의 가구시청률과 개인시청률의 변화(〈그림 4-2-1〉)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연령별 시청률 동향과 유사하게 10대에서 60세 이상으로 갈수록 시청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TV 시청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TV 수상기에서 이들의 빠른 이탈 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TV 시청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4 월별 가구시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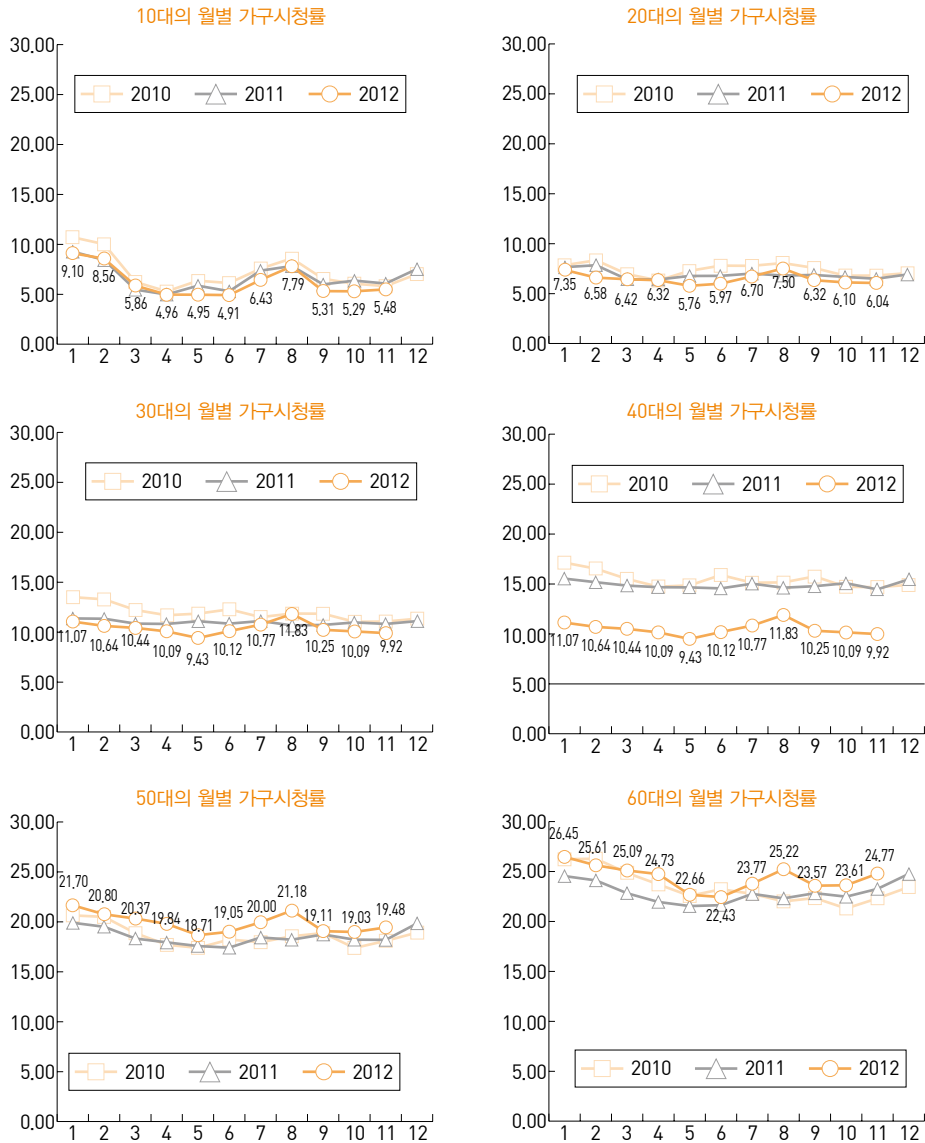
그림 4-2-3 월별 가구시청 동향(2010년~2012년 11월)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38.89	38.36	35.59	33.98	33.87	35.46	35.27	35.63	35.06	33.60	33.97	35.66
2011년	37.18	36.06	34.40	33.43	33.43	33.30	35.29	34.62	33.47	33.54	33.59	36.06
2012년	36.65	36.21	34.46	33.36	31.75	32.36	34.26	36.59	33.05	33.04	34.00	-

전반적으로 TV 시청률은 생활시간 중 여가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TV 시청 이외의 대체활동이 가능한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일정한 비율의 여가시간중 시청자는 다른 미디어 이용, 야외활동 등을 고려하여 TV를 시청한다. 따라서 시청자의 야외활동 정도를 결정하는 일광시간은 시청률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TV 시청률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방학이 있는 겨울과

그림 4-2-4 연령별 월별 가구시청률(2010년~2012년 11월) (단위: %)



* 그래프 안의 수치는 2012년도 시청률을 의미함.

여름의 시청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2012년은 지난 2년간에 비해 전체적으로 월별 가구시청률이 상당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5월의 감소폭이 다른 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이후 지상파 방송사(KBS, MBC)의 파업의 영향과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적 요인이 결합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후 지상파방송 파업 종료, 학생들의 하계방학, 그리고 런던올림픽이 겹친 7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8월에는 예년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월부터는 다시 시청률이 감소하여 2011년보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이후 11월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시청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월별 가구시청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0대 이하의 시청자는 올림픽이 있었던 8월을 제외하고 과거에 비해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60대의 경우 예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V 시청이 40대를 기준으로 상이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40대 이하 시청자의 TV 이탈현상이 보이는 가운데, 50대 이상에서 TV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시간대별 시청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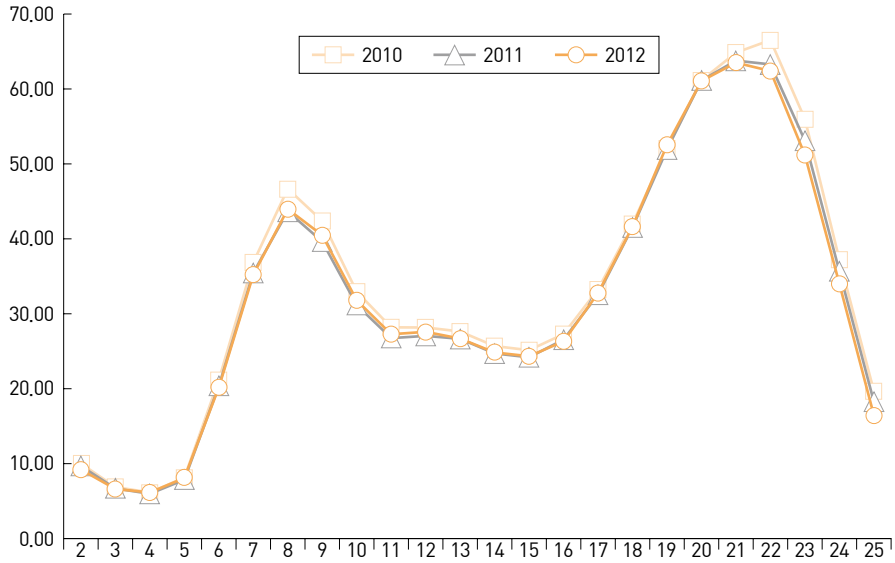
1) 주중 시청률 동향

주중 가구시청률은 크게 2개의 고점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오전 8~9시는 출근시간 이후 아침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대이며, 밤 22시~23시는 귀가한 가구 구성원들이 역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대이다. 전반적으로 평일 시청률은 9시 이후 감소하였다가 어린이들이 귀가하는 16시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후 22시까지 지속적인 시청률 증가가 이루어진 이후, 23시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시청률은 201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은 시청이 이루어지는 8~9시, 20~23시 시간대는 감소한 반면, 낮 시간대의 시청률은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시청률의 경우 가구시청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TV 시청률이 2010년, 2011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라임 타임인 8~09시, 22~23시의 시청률은 2011년에 비해 2~3% 정도 증가하였다. 가구시청률이 하락하고 개인시청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그림 4-2-1>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개인시청률의 증가는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노령인구(50~60대)의 TV 시청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5 주중 시간대별 가구시청률 동향(2010년~2012년 11월)³⁾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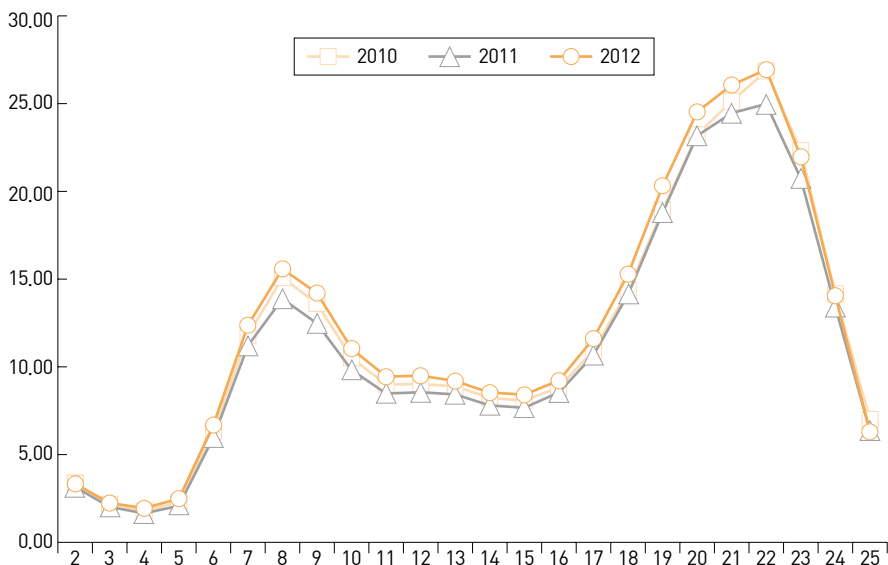
시간대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2010	10.0	6.9	6.2	8.1	21.2	36.9	46.7	42.4	33.0	28.2	28.2	27.6
2011	9.7	6.7	6.0	7.9	20.4	35.5	43.7	39.6	31.2	26.8	27.1	26.7
2012	9.2	6.6	6.2	8.1	20.2	35.2	44.0	40.5	31.8	27.3	27.6	26.7

시간대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25시
2010	25.7	25.1	27.3	33.3	42.0	52.0	61.2	64.9	66.5	56.0	37.2	19.7
2011	24.7	24.2	26.6	32.6	41.6	51.9	61.1	63.8	63.3	53.1	35.7	18.3
2012	24.8	24.3	26.3	32.8	41.6	52.5	61.1	63.5	63.5	51.2	34.0	16.5

주중 시간대별 시청률의 변화 양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10~20대는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감소한 가운데, 오전 시간대의 시청률 증가부분이 없으며, 18시 이후 시청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대 이상 연령대부터는 전체 시청경향과 유사하게 오전시간대(7~9시)와 프라임 타임대 시청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30대까지는 시청률이 줄고 있고, 40대는 프라임 타임대를 중심으로 조금 증가했으며, 50~60대의 경우 2012년은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시청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3)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서는 시간대별 시청률을 오전 2시에서 익일 오전 1시까지 나눠 조사하는데, 이때 익일 오전 1시를 '25시'로 표기한다. 이는 늦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자정을 넘겨 끝나는 경우에도 해당일 시청률로 계산되도록 하기 위한 편의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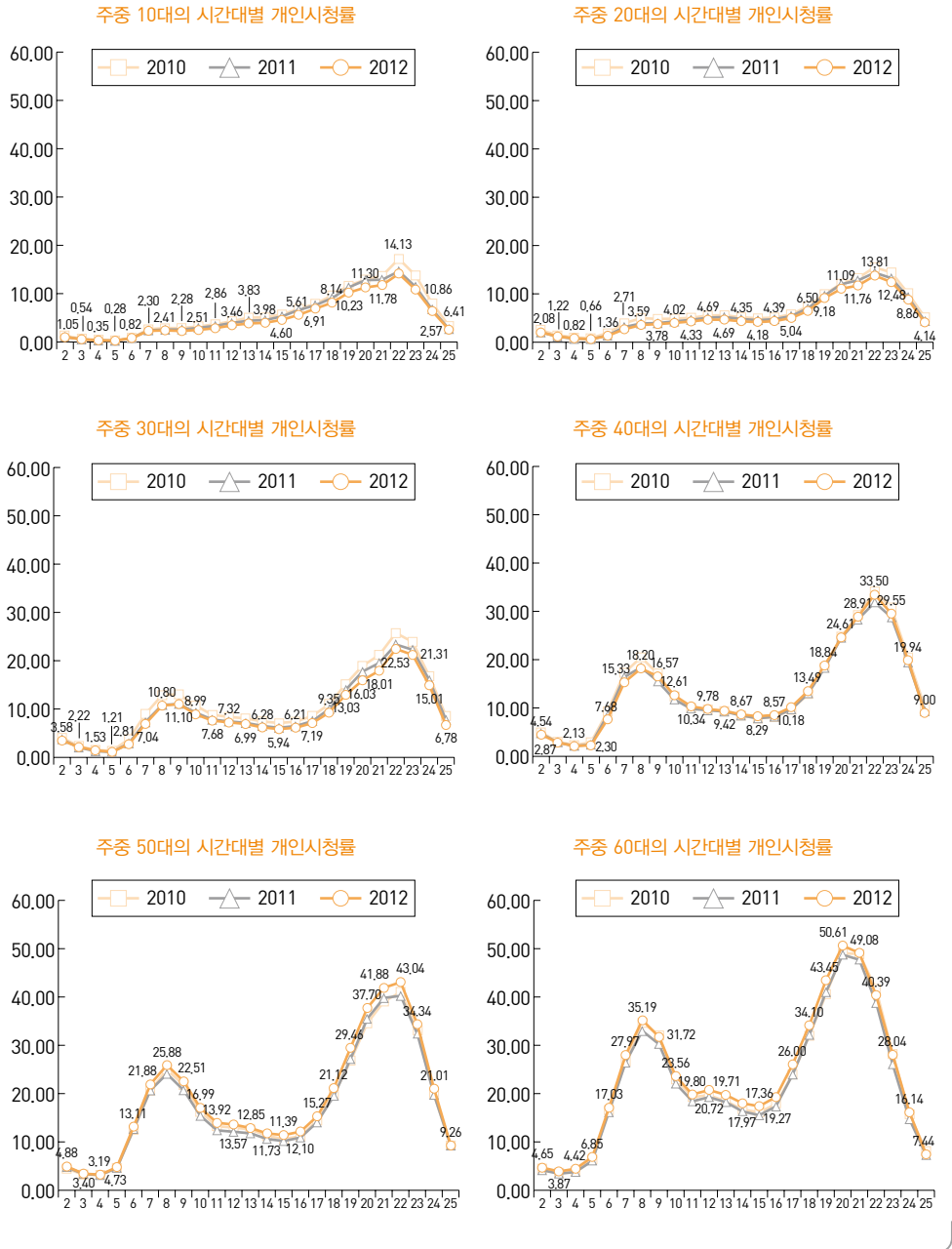
그림 4-2-6 주중 시간대별 개인시청률 동향(2010년~2012년 11월) (단위: %)



시간대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2010	3.4	2.2	1.8	2.3	6.3	11.8	15.1	13.6	10.5	9.0	9.0	8.9
2011	3.2	2.0	1.7	2.1	6.0	11.2	13.9	12.5	9.8	8.5	8.6	8.4
2012	3.3	2.2	2.0	2.5	6.7	12.4	15.6	14.1	11.0	9.4	9.5	9.2
시간대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25시
2010	8.2	8.1	8.8	10.9	14.4	18.9	23.2	25.1	26.9	22.3	14.2	7.0
2011	7.8	7.7	8.5	10.7	14.1	18.8	23.2	24.5	25.0	20.1	13.4	6.4
2012	8.5	8.4	9.2	11.6	15.3	20.3	24.5	26.1	27.0	22.0	14.1	6.3

그림 4-2-7 주중 연령별 시간대별 개인시청률(2010년~2012년 11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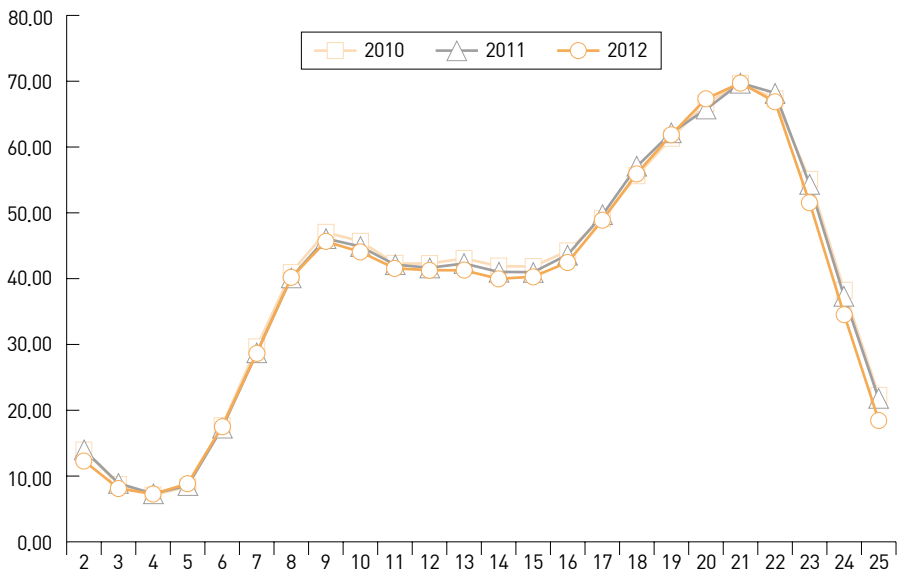
* 그래프 안의 수치는 2012년도 시청률을 의미함.

2) 주말 시간대별 시청률

주말 가구시청률은 평일과 유사하지만, 낮 시간대 시청률이 줄어들지 않고 40%이상을 유지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2012년 11월까지의 주말 가구시청률은 2010년에 비해 낮 시간대(10~16시)의 시청률은 감소한 반면, 저녁시간대(17~20시)는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부터 시행된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5일제 수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2년 11월까지 주말 개인시청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시청률과 달리 전 시간대에 걸쳐 2010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22시 시간대의 시청률이 2~3% 정

그림 4-2-8 주말 시간대별 가구시청률(2010년~2012년 11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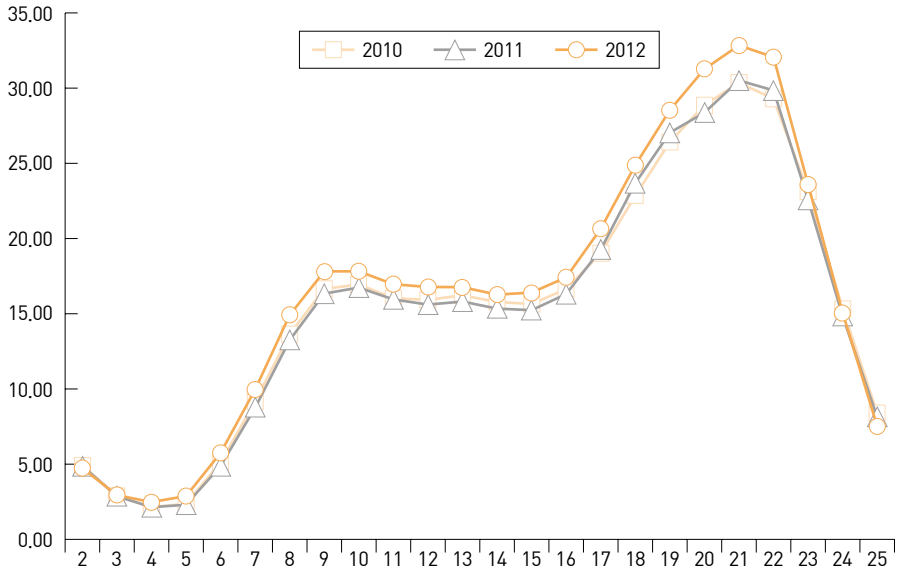
시간대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2010	13.9	8.7	7.1	8.4	17.7	29.6	40.9	47.0	45.7	42.3	42.3	43.1
2011	14.0	8.9	7.3	8.6	17.3	28.7	40.2	46.1	44.9	42.1	41.7	42.3
2012	12.3	8.1	7.3	8.8	17.5	28.7	40.2	45.7	44.1	41.6	41.3	41.3
시간대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25시
2010	41.9	41.8	44.2	49.1	55.7	61.4	66.2	69.7	67.3	55.1	38.2	22.2
2011	41.0	41.0	43.7	49.6	57.1	62.2	65.7	69.7	68.2	54.3	37.3	21.7
2012	40.0	40.3	42.5	48.9	56.0	61.9	67.3	69.7	66.9	51.5	34.5	18.5

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말 연령대별 개인시청률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평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가운데, 10대~30대의 시청률은 2011년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 반면, 40대 이상의 시청자들은 2011년에 비해 시청률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40대 이상의 시청자의 시청률 증가가 개인시청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2010년 이후 개인시청률에서 30대 이하 시청자의 시청률은 감소하는 가운데, 40대 이상의 시청률은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림 4-2-9 주말 시간대별 개인시청률(2010년~2012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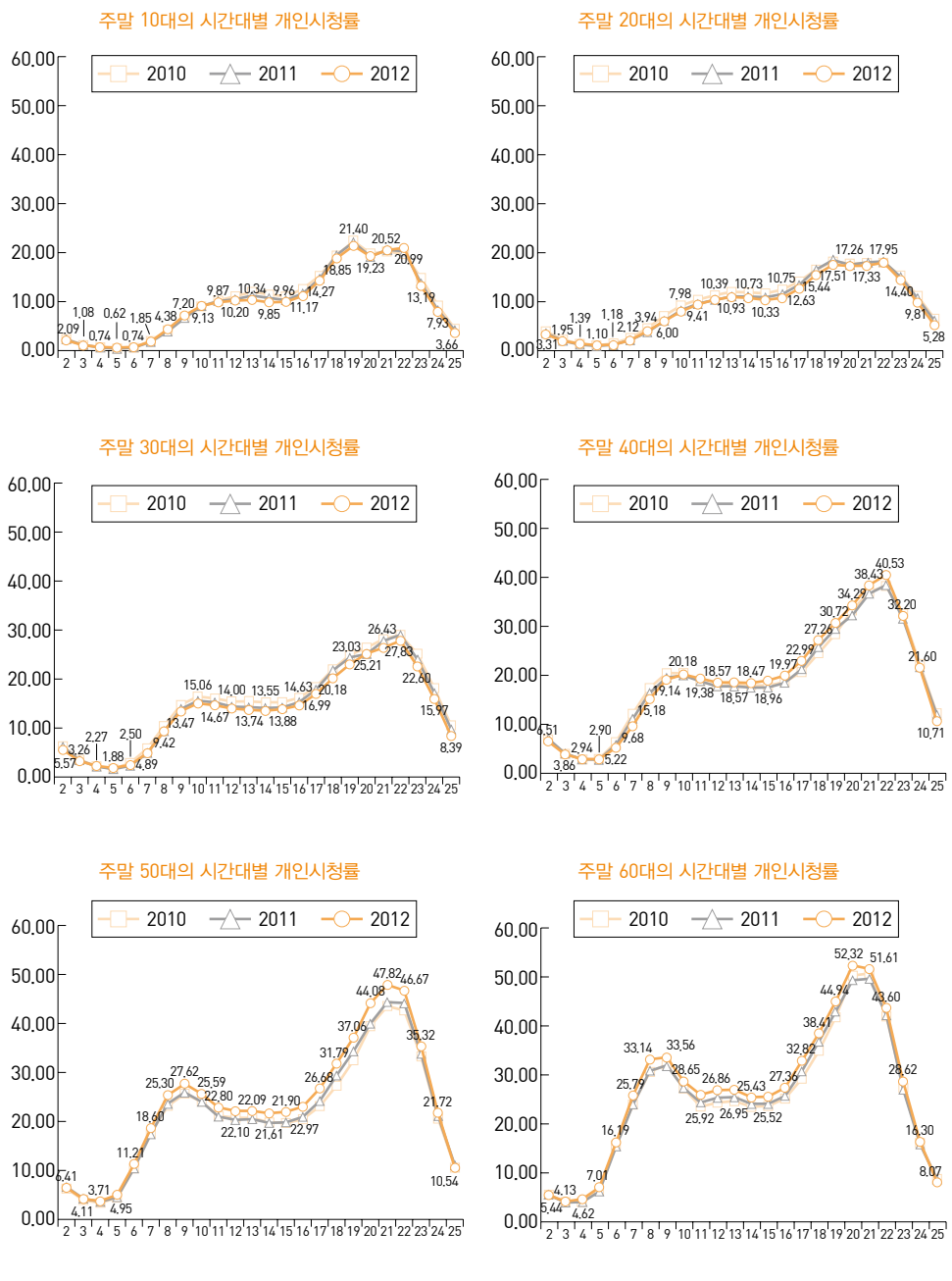
(단위: %)



시간대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2010	4.9	2.9	2.2	2.4	5.1	9.2	13.6	16.7	17.0	16.0	15.9	16.2
2011	4.9	2.9	2.1	2.3	4.9	8.8	13.3	16.3	16.7	16.0	15.6	15.8
2012	4.7	2.9	2.5	2.9	5.8	10.0	14.9	17.8	17.8	17.0	16.8	16.8

시간대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25시
2010	15.8	15.7	16.6	19.0	22.9	26.4	28.9	30.4	29.3	23.1	15.3	8.4
2011	15.3	15.2	16.3	19.3	23.7	27.0	28.4	30.5	29.9	22.6	14.8	8.1
2012	16.3	16.4	17.4	20.7	24.9	28.5	31.3	32.8	32.1	23.6	15.1	7.5

그림 4-2-10 주말 연령별 시간대별 개인시청률(2010년~2012년 11월) (단위: %)



* 그래프 안의 수치는 2012년도 시청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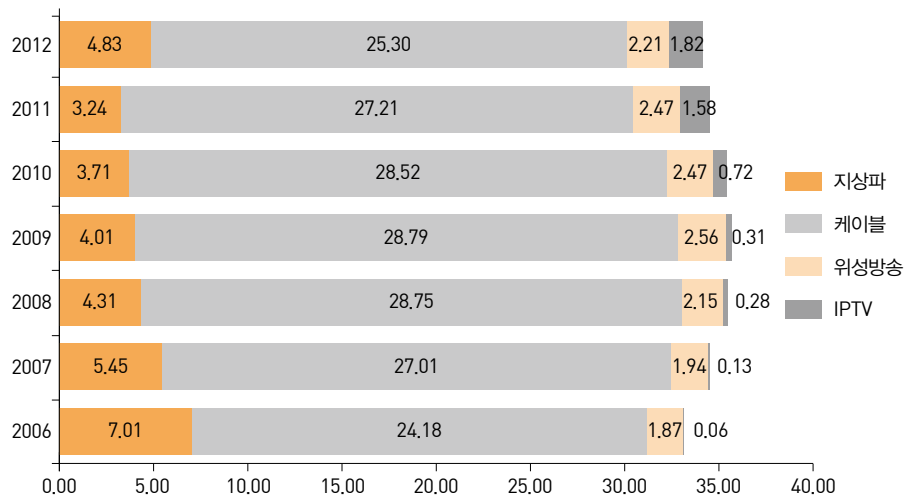
6 방송영상 플랫폼별 시청률 동향⁴⁾

TV를 수신하는 방법인 플랫폼별 가구시청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케이블 플랫폼을 통한 시청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중파 안테나를 통한 지상파방송 시청률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2년에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시청망의 개선 및 확충으로 지상파 공청망을 이용한 시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방송 플랫폼은 2008년까지 성장하다 2009년 위성방송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2년에는 전체시청률이 2%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PTV를 이용한 시청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연도별 하루 평균 시청시간(ATV)으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시청 시간은 2006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지상파방송 플랫폼의 시청시간은 2006년 228분에서 2012년에는 167분으로 60분 감소, 케이블은 2006년 485분에서 507분으로 18분 증가, 위성방송은 2006년 385분에서 420분으로 35분 증가, IPTV 및 기타는 95분에서 356분으로 61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1 방송영상 플랫폼별 가구시청률 동향(2006년~2012년 11월)

(단위: %)



4) 방송영상 플랫폼별 시청률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방법, 즉 안테나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수신이 얼마나 되고, 동축케이블, 혹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는지 조사한 것이다.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은 케이블방송을 통해 대부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별 시청률은 위성방송이나 IPTV보다 가입자가 많은 케이블방송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표 4-2-2 연도별 하루 평균 시청시간(2006년~2012년 11월)

(단위: 분)

연도	전체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및 기타
2006	504	228	485	385	95
2007	515	203	504	412	136
2008	530	140	517	428	121
2009	528	126	514	399	113
2010	531	118	519	424	214
2011	524	108	505	424	293
2012	519	167	507	420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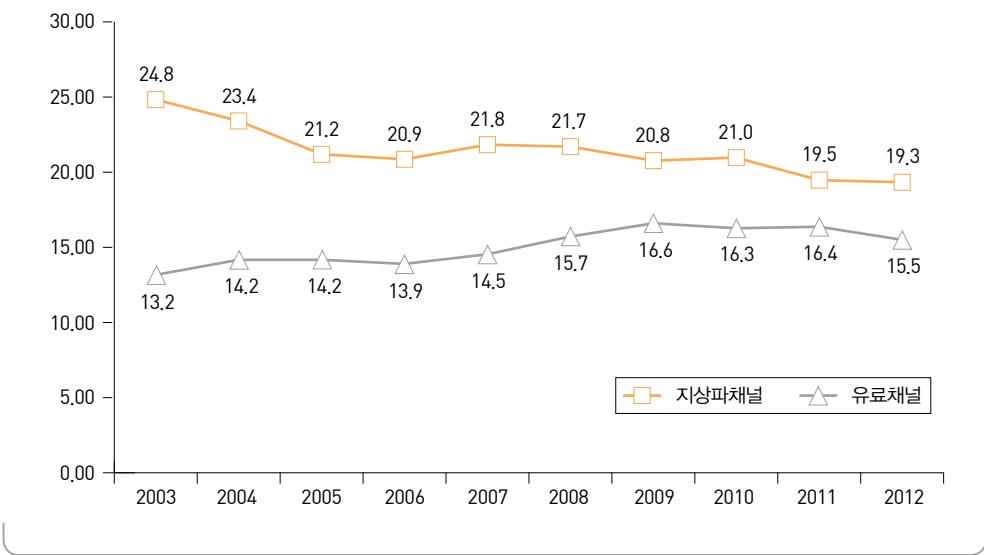
제 2 절 채널 시청률 동향⁵⁾

1 지상파채널과 유료채널의 시청률

2003년에서 2012년 11월 현재까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의 채널별 시청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상파채널과 유료채널(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로 구분하여 연간 시청률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방송영상시장의 전통적 강자인 지상파채널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료채널 간 시청률의 연도별 변화는 다음 <그림 4-2-12>와 같다.

먼저 지상파채널은 2003년 가구시청률 24.8%, 유료채널은 13.2%로 약 2배가량의 격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격차는 점차 좁아져, 2012년에는 각각 19.3%, 15.5%를 기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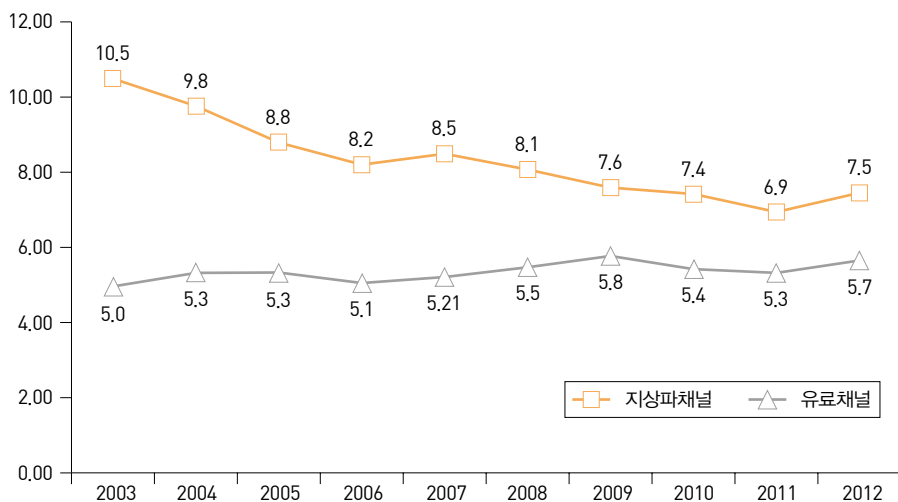
그림 4-2-12 지상파채널과 유료채널의 연간 가구시청률(2003년~2012년 11월) (단위: %)



- 5) 시청률을 방송영상 플랫폼으로 구분했을 경우 프로그램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이 작게 나타날 수 있으나, 채널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에 있는 지상파방송 채널 시청이 '지상파방송 시청률'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고, 타 방송과의 비교도 가능하다.
- 6)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를 '유료방송'으로 묶은 이유는 채널 시청률을 조사하는 경우 플랫폼별 시청률과 달리 지상파채널이 빠져나가게 되어 나머지 세 방송의 채널 시청률이 낮게 나타나 비교의 의미가 퇴색하고, 또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지상파채널을 제외한 기타 방송의 채널 시청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2-13 지상파채널과 유료채널의 연간 개인시청률(2003년~2012년 11월)

(단위: %)



그 격차가 3.8% 정도로 나타났다. 물론 지상파채널은 KBS 1TV, KBS 2TV, MBC와 지방 MBC, SBS와 가맹국을, 유료채널은 약 140여개의 채널별 시청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지상파채널의 시청률이 감소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를 개인시청률로 살펴보면, 그 격차는 좀 더 좁혀진다. 지상파채널의 가구 시청률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다면, 개인시청률은 보다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유료채널의 개인시청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앞서 살펴본 노령인구 시청의 영향으로 인해 지상파와 유료채널 시청률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채널간의 차이가 1.8% 정도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채널 간의 시청률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그림 4-2-14〉, 〈표 4-2-3〉),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TV 시청률이 줄고 있고, 특히 지상파채널의 시청률 감소가 눈에 띄고 있다. 그리고 지상파와 유료채널을 포함해 젊은 층의 TV 이탈 현상이 관찰되며, 조금이지만 40대, 50대, 60세 이상 시청자들의 유료채널로의 이동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이하 시청자의 TV 시청량이 비슷한 상황에서 40대 이상 시청자가 지상파에서 천천히 유료채널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료채널의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상파와 유료채널의 차이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14 지상파채널과 유료채널의 연령별 개인시청률 변화(2010년~2012년 11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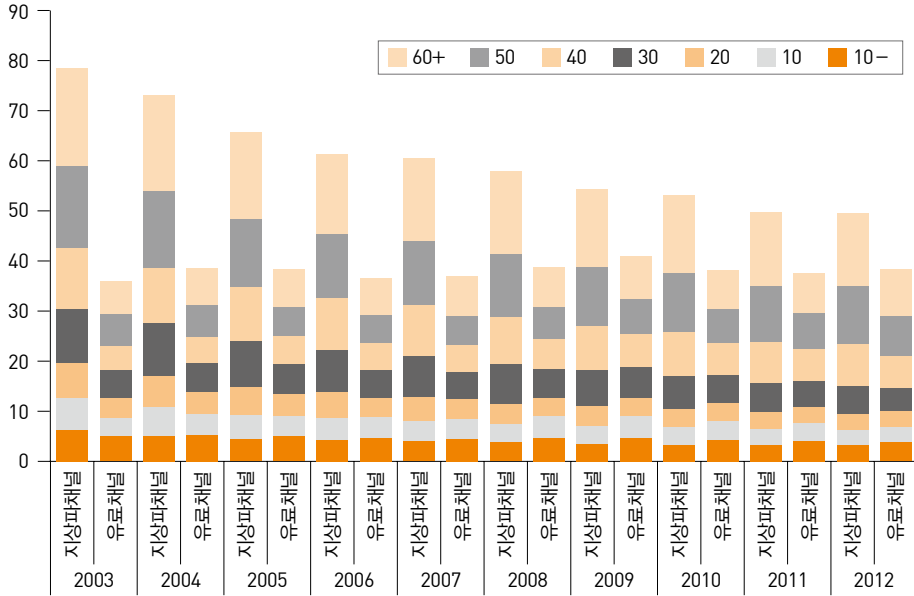


표 4-2-3 지상파채널과 유료채널의 연령별 개인시청률 변화(2010년~2012년 11월) (단위: %)

연도	채널	10-	10	20	30	40	50	60+
2003	지상파채널	6.27	6.32	6.89	10.85	12.18	16.39	19.45
	유료채널	4.90	3.63	4.18	5.46	4.86	6.23	6.74
2004	지상파채널	5.05	5.67	6.33	10.49	10.95	15.46	19.05
	유료채널	5.27	4.11	4.40	5.84	5.09	6.38	7.52
2005	지상파채널	4.34	4.87	5.45	9.25	10.82	13.51	17.46
	유료채널	4.94	4.09	4.29	6.01	5.55	5.84	7.67
2006	지상파채널	4.27	4.26	5.22	8.49	10.20	12.83	16.05
	유료채널	4.62	4.11	3.90	5.41	5.45	5.64	7.34
2007	지상파채널	3.91	4.11	4.65	8.35	10.03	12.80	16.75
	유료채널	4.45	3.93	3.96	5.43	5.39	5.77	8.06
2008	지상파채널	3.75	3.76	3.98	7.94	9.31	12.65	16.56
	유료채널	4.66	4.26	3.75	5.78	5.91	6.28	8.18
2009	지상파채널	3.43	3.58	3.89	7.22	8.84	11.79	15.54
	유료채널	4.65	4.20	3.74	6.22	6.52	7.04	8.42
2010	지상파채널	3.28	3.40	3.77	6.40	8.98	11.70	15.59
	유료채널	4.25	3.76	3.59	5.56	6.35	6.92	7.77
2011	지상파채널	3.23	3.05	3.45	5.79	8.20	11.26	14.69
	유료채널	4.00	3.55	3.33	5.01	6.46	7.12	8.13
2012	지상파채널	3.22	3.01	3.18	5.48	8.46	11.56	14.64
	유료채널	3.73	3.09	3.13	4.64	6.31	8.05	9.39

2 채널별 시청률 동향

1) KBS 1TV

KBS 1TV 시청률의 가장 큰 특징은 주중 시청률이 주말 시청률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가구/개인시청률 모두 주중 시청률이 주말 시청률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주중보다는 주말의 시청률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특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2012년에는 주중-주말의 차이가 더 커져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표 4-2-5〉), 50대와 60대에서 주중과 주말 시청률의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KBS 1TV의 주 시청자인 50대 이상 시청자들이 주중에는 KBS 1TV를 시청하고, 주말에는 주중과 달리 다른 채널을 주로 시청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말 KBS 1TV의 교양 프로그램 중심의 편성 특성과 주말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시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4 KBS 1TV의 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연도	가구			개인		
	주중	주말	주중-주말	주중	주말	주중-주말
2003	6.26	6.25	0.01	2.64	2.77	-0.13
2004	5.89	5.79	0.10	2.43	2.49	-0.06
2005	5.06	5.23	-0.16	2.08	2.27	-0.18
2006	5.14	4.86	0.29	1.94	1.91	0.03
2007	5.96	6.26	-0.30	2.11	2.44	-0.33
2008	6.17	5.15	1.02	2.06	1.82	0.24
2009	5.19	4.41	0.78	1.70	1.52	0.17
2010	5.29	4.54	0.76	1.69	1.53	0.15
2011	5.28	4.51	0.77	1.70	1.56	0.15
2012	5.92	4.75	1.17	2.02	1.70	0.33

표 4-2-5 연령별 KBS 1TV의 개인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대 이하	주중	0.748	0.675	0.501	0.534	0.419	0.474	0.278	0.294	0.347	0.304
	주말	0.924	0.803	0.807	0.557	0.766	0.484	0.345	0.356	0.433	0.368
10대	주중	0.671	0.620	0.522	0.445	0.385	0.424	0.286	0.277	0.294	0.279
	주말	0.933	0.829	0.806	0.603	0.790	0.526	0.411	0.425	0.454	0.380
20대	주중	0.979	0.867	0.689	0.699	0.613	0.533	0.436	0.437	0.423	0.413
	주말	1.188	0.997	0.905	0.772	0.902	0.562	0.485	0.489	0.455	0.452
30대	주중	1.798	1.696	1.310	1.177	1.018	1.064	0.759	0.730	0.706	0.701
	주말	2.227	2.051	1.888	1.358	1.683	1.118	0.809	0.787	0.838	0.698
40대	주중	3.175	2.732	2.550	2.224	1.996	1.875	1.481	1.492	1.434	1.514
	주말	3.372	2.826	2.722	2.262	2.626	1.890	1.546	1.566	1.539	1.399
50대	주중	5.708	5.028	4.193	4.020	3.822	3.751	3.100	3.070	3.200	3.385
	주말	5.542	4.856	4.146	3.843	4.223	3.184	2.633	2.702	2.734	2.807
60대 이상	주중	9.023	8.910	7.892	7.398	8.165	7.840	6.843	6.727	6.620	6.794
	주말	8.242	8.077	7.137	6.396	7.335	6.040	5.347	5.261	5.188	5.167

2) KBS 2TV

2012년 기준으로 KBS 2TV의 경우 주중 시청률에 비해 주말 시청률이 가구시청률의 경우 3.1%, 개인시청률의 경우 1.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2012년이 예년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표 4-2-6 KBS 2TV의 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연도	가구			개인		
	주중	주말	주중-주말	주중	주말	주중-주말
2003	4.63	7.45	-2.83	1.91	3.38	-1.46
2004	4.53	7.02	-2.48	1.86	3.10	-1.25
2005	4.42	6.82	-2.40	1.80	3.03	-1.23
2006	4.18	6.86	-2.68	1.59	2.93	-1.34
2007	4.02	6.54	-2.51	1.52	2.76	-1.25
2008	4.08	6.96	-2.88	1.50	2.89	-1.39
2009	4.05	7.53	-3.48	1.46	3.15	-1.69
2010	4.20	7.22	-3.02	1.51	2.92	-1.41
2011	3.60	6.48	-2.88	1.28	2.66	-1.38
2012	3.76	6.86	-3.10	1.45	3.08	-1.63

표 4-2-7 연령별 KBS 2TV의 개인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대 이하	주중	1.335	1.070	0.966	0.673	0.567	0.618	0.631	0.728	0.572	0.552
	주말	2.274	1.803	1.660	1.720	1.549	1.668	1.829	1.707	1.654	1.921
10대	주중	1.314	1.319	1.061	0.851	0.782	0.747	0.796	0.891	0.642	0.654
	주말	3.015	2.673	2.563	2.461	2.091	2.162	2.322	2.006	1.779	2.014
20대	주중	1.288	1.293	1.190	1.085	0.887	0.764	0.785	0.819	0.699	0.696
	주말	2.563	2.319	2.200	2.183	1.830	1.751	1.979	1.844	1.601	1.735
30대	주중	2.064	2.085	2.030	1.717	1.603	1.620	1.598	1.446	1.144	1.184
	주말	3.676	3.451	3.341	3.160	2.979	3.192	3.552	3.012	2.612	2.797
40대	주중	2.257	2.175	2.338	2.194	2.030	1.936	1.843	1.948	1.625	1.911
	주말	3.696	3.356	3.637	3.598	3.303	3.414	3.857	3.726	3.329	3.937
50대	주중	2.734	2.696	2.616	2.493	2.315	2.384	2.245	2.329	2.147	2.320
	주말	4.265	4.110	3.862	3.807	3.582	3.829	4.065	3.975	3.749	4.308
60대 이상	주중	3.047	2.838	2.930	2.529	2.364	2.438	2.285	2.468	2.193	2.248
	주말	4.667	4.571	4.382	3.900	3.888	4.141	4.154	4.043	3.888	4.014

이러한 차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표 4-2-7>), 모든 연령대에서 주중보다 주말 시청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30대 이상 시청자들에서 주중-주말 시청률 차이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MBC

MBC도 주중보다 2012년 주말 시청률이 가구시청률의 경우 약 1.5%, 개인시청률의 경우 약 0.8%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MBC의 경우 1월말부터 진행된 파업의 영향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가구/개인시청률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욱이 주중 시청의 감소보다 주말 시청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주중과 주말의 시청률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 시청률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시청률 감소가 나타났다으며, 특히 2~30대의 주말시청이 201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MBC는 2012년 장기파업의 여파로 시청률이 감소하였으며, 주중보다 주말 시청률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MBC의 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연도	가구			개인		
	주중	주말	주중-주말	주중	주말	주중-주말
2003	5.76	7.84	-2.08	2.34	3.47	-1.12
2004	5.48	7.10	-1.62	2.21	3.10	-0.89
2005	4.53	5.88	-1.35	1.82	2.53	-0.71
2006	4.58	5.76	-1.18	1.78	2.42	-0.64
2007	5.08	6.19	-1.11	2.02	2.65	-0.64
2008	4.69	6.22	-1.53	1.77	2.56	-0.79
2009	4.67	5.32	-0.65	1.72	2.10	-0.38
2010	4.30	5.62	-1.32	1.51	2.17	-0.67
2011	4.05	6.23	-2.18	1.41	2.45	-1.04
2012	3.38	4.83	-1.45	1.29	2.06	-0.77

표 4-2-9 연령별 MBC의 개인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대 이하	주중	1.307	1.074	0.778	0.820	0.860	0.651	0.638	0.561	0.493	0.392
	주말	2.025	1.745	1.199	1.248	1.317	1.401	0.980	1.002	1.131	0.889
10대	주중	1.344	1.189	0.946	0.923	1.063	0.829	0.763	0.614	0.584	0.482
	주말	2.867	2.345	1.770	1.735	1.946	1.817	1.440	1.507	1.633	1.274
20대	주중	1.750	1.641	1.245	1.276	1.289	1.009	1.011	0.859	0.784	0.596
	주말	2.976	2.549	1.949	1.982	2.136	1.928	1.619	1.666	1.844	1.266
30대	주중	2.800	2.757	2.136	2.135	2.416	2.037	1.931	1.522	1.344	1.096
	주말	4.240	4.006	3.167	2.978	3.159	3.103	2.431	2.243	2.505	1.886
40대	주중	2.931	2.600	2.344	2.366	2.634	2.343	2.255	2.043	1.966	1.683
	주말	3.839	3.378	3.065	2.957	3.126	2.976	2.549	2.787	3.158	2.736
50대	주중	3.515	3.483	2.829	2.619	2.872	2.793	2.741	2.444	2.322	2.099
	주말	4.335	4.004	3.338	3.041	3.300	3.295	2.765	2.921	3.506	2.933
60대 이상	주중	3.065	3.137	2.896	2.580	2.700	2.565	2.592	2.425	2.282	2.071
	주말	3.743	3.581	3.246	2.928	3.080	3.029	2.566	2.725	2.954	2.585

4) SBS

2012년 SBS의 주중과 주말 시청률을 살펴보면, 다른 지상파 채널에 비해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크며, 주말 시청률이 가구시청률의 경우 2.0%, 개인시청률의 경우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전반적으로 주말 시청률이 높아져 주중과

표 4-2-10 SBS의 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연도	가구			개인		
	주중	주말	주중-주말	주중	주말	주중-주말
2003	5.03	7.24	-2.21	2.08	3.18	-1.10
2004	4.59	7.59	-3.00	1.86	3.35	-1.48
2005	4.50	7.25	-2.75	1.80	3.19	-1.40
2006	4.47	6.73	-2.26	1.72	2.84	-1.12
2007	4.55	6.12	-1.57	1.75	2.54	-0.79
2008	4.39	7.00	-2.61	1.60	2.80	-1.20
2009	4.39	7.20	-2.81	1.54	2.82	-1.27
2010	4.97	6.76	-1.79	1.68	2.52	-0.85
2011	4.06	5.83	-1.78	1.38	2.19	-0.81
2012	3.88	5.88	-2.00	1.45	2.49	-1.04

주말의 시청률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이는 주말 SBS 예능 프로그램의 선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KBS와 MBC가 파업으로 인해 고전할 때 SBS는 예능 프로그램과 뉴스 등을 중심으로 시청자들을 시선을 끌며 2012년도 방송프로그램 판도를 흔들었다.

주중과 주말 시청률 차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SBS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말 시청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상의 주말 시청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1 연령별 SBS의 개인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대 이하	주중	1.119	0.805	0.695	0.688	0.617	0.557	0.536	0.533	0.423	0.395
	주말	1.716	1.607	1.594	1.562	1.281	1.277	1.318	1.138	1.076	1.339
10대	주중	1.434	1.168	1.050	0.922	0.826	0.685	0.657	0.674	0.524	0.507
	주말	2.623	2.717	2.641	1.925	1.649	1.708	1.778	1.515	1.336	1.634
20대	주중	1.509	1.355	1.262	1.232	0.995	0.801	0.772	0.833	0.680	0.634
	주말	2.462	2.652	2.440	2.066	1.625	1.707	1.768	1.570	1.365	1.448
30대	주중	2.285	2.081	2.044	1.949	1.880	1.678	1.479	1.494	1.238	1.153
	주말	3.496	3.781	3.560	3.171	2.735	2.951	2.829	2.293	1.992	2.106
40대	주중	2.466	2.168	2.370	2.278	2.287	1.988	1.941	2.239	1.799	1.850
	주말	3.542	3.710	3.790	3.550	3.163	3.344	3.381	3.165	2.642	3.013
50대	주중	3.109	3.017	2.766	2.693	2.822	2.707	2.589	2.771	2.332	2.351
	주말	4.438	4.680	4.301	4.024	3.594	4.230	4.237	3.833	3.259	3.490
60대 이상	주중	3.110	2.979	2.754	2.676	2.770	2.893	2.974	3.274	2.677	2.591
	주말	4.436	4.673	4.348	4.080	3.617	4.404	4.449	4.205	3.712	3.668

5) 유료채널

유료채널은 2003년에는 주중과 주말 시청률이 크게 차이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주중과 주말 시청률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가구시청률의 경우 약 1.7%, 개인시청률의 경우 약 1.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 4-2-12 유료채널의 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연도	가구			개인		
	주중	주말	주중-주말	주중	주말	주중-주말
2003	13.06	13.45	-0.39	4.81	5.34	-0.52
2004	13.89	14.86	-0.97	5.11	5.83	-0.72
2005	13.82	15.02	-1.20	5.08	5.95	-0.88
2006	13.35	15.24	-1.89	4.75	5.80	-1.05
2007	14.01	15.89	-1.88	4.91	5.96	-1.05
2008	15.20	17.04	-1.85	5.19	6.18	-0.99
2009	16.04	18.01	-1.97	5.45	6.57	-1.12
2010	15.75	17.60	-1.85	5.13	6.14	-1.01
2011	15.78	17.85	-2.07	5.02	6.09	-1.07
2012	15.01	16.73	-1.72	5.34	6.44	-1.10

표 4-2-13 연령별 유료채널의 개인시청률 동향(2003년~2012년 11월)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대 이하	주중	4.679	5.020	4.671	4.340	4.127	4.280	4.329	3.959	3.660	3.411
	주말	5.451	5.909	5.607	5.310	5.259	5.603	5.438	4.989	4.846	4.546
10대	주중	3.387	3.839	3.739	3.743	3.581	3.962	3.847	3.474	3.257	2.784
	주말	4.233	4.805	4.959	5.005	4.798	5.011	5.072	4.485	4.273	3.851
20대	주중	4.053	4.257	4.100	3.662	3.697	3.491	3.431	3.320	3.063	2.834
	주말	4.486	4.752	4.745	4.491	4.635	4.394	4.499	4.265	3.978	3.892
30대	주중	5.264	5.539	5.682	5.043	5.106	5.471	5.876	5.229	4.686	4.315
	주말	5.941	6.593	6.814	6.316	6.260	6.572	7.087	6.385	5.829	5.446
40대	주중	4.729	4.867	5.298	5.090	5.021	5.561	6.123	5.975	6.097	5.982
	주말	5.190	5.643	6.161	6.329	6.313	6.797	7.515	7.279	7.361	7.133
50대	주중	6.118	6.240	5.590	5.320	5.505	6.074	6.779	6.661	6.790	7.693
	주말	6.517	6.729	6.459	6.417	6.439	6.795	7.689	7.584	7.948	8.959
60대 이상	주중	6.786	7.493	7.608	7.251	7.932	8.029	8.216	7.624	7.904	9.148
	주말	6.620	7.580	7.808	7.578	8.396	8.558	8.935	8.140	8.690	10.020

이러한 경향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주중보다 주말의 시청률이 1%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40대 이상의 시청자들의 경우 약 2.8% 정도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시청자들은 전반적으로 시청량이 증가하는 주말의 경우 지상파 뿐 아니라 유료채널들로 채널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지상파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40대 이상의 시청자들도 유료방송 채널을 시청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2012년 인기 프로그램 분석

2012년 인기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지상파채널과 유료채널로 구분하여 가구/개인 시청률 상위 20위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각 프로그램의 회별 최고 시청률, 방송되는 시간 동안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최고의 1분’ 시청률을 각각 분석하였다.

1 가구시청률 Top 20 지상파채널 프로그램

지상파 프로그램 중 가구시청률이 높은 장르는 <표 4-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p 20 리스트에서 18개나 포함된 드라마 장르로 나타났다. 2012년 가구시청률 최고를 기록한 프로그램은 KBS 2TV의 주말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평균 가구시청률 33.1%, 회별 최대 시청률 45.3%를 기록하였다. 2위는 MBC의 수목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 차지

표 4-2-14 2012년 가구시청률 Top 20 지상파채널 프로그램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 회수	가구시청률	회별 최대	최고 1분
1	KBS 2TV	주말연속극<넝쿨째 굴러온 당신>	58	33.09	45.29	52.28
2	MBC	수목미니시리즈<해를 품은 달>	20	32.87	42.17	48.08
3	KBS 2TV	주말연속극<오작교 형제들>	15	30.75	36.30	43.67
4	KBS 2TV	주말연속극<내딸 서영이>	22	28.16	33.32	39.24
5	MBC	수목미니시리즈<해를 품은 달 스페셜 1부>	1	24.53	24.53	27.86
6	KBS 1TV	일일연속극<별도 달도 따줄게>	129	23.67	31.83	38.19
7	KBS 1TV	일일연속극<힘내요 미스터 김>	20	23.54	25.81	31.92
8	KBS 1TV	일일연속극<당신뿐이야>	89	21.89	24.80	33.25
9	KBS 2TV	<개그콘서트>	48	20.57	25.65	35.61
1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애정 만만세>	9	19.72	23.53	32.32
11	KBS 1TV	KBS<9시뉴스>	339	19.32	31.02	35.66
12	SBS	특별기획<신사의 품격>	20	19.30	24.44	31.12
13	MBC	창사특별기획<빛과 그림자>	54	19.27	24.13	28.24
14	MBC	수목미니시리즈<해를 품은 달 스페셜 2부>	1	19.18	19.18	21.72
15	KBS 2TV	특별기획드라마<각시탈>	28	16.88	22.93	26.89
16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메이퀸>	30	16.70	20.99	31.06
17	KBS 1TV	대하드라마<광개토태왕>	34	16.67	18.92	21.40
18	SBS	주말극장<내일이오면>	33	16.17	18.88	26.33
19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신들의 만찬>	32	16.11	20.36	26.42
20	SBS	일일드라마<내딸 꽃님이>	97	16.00	18.51	22.81

했는데, 드라마의 내용을 축약하여 방송한 <해를 품은 달 스페셜>도 각각 5위와 15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KBS 2TV의 주말드라마 <오작교 형제들>, <내 딸 서영이>가 차지했는데, 이는 가족이 함께보는 주말드라마의 상대적 이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드라마 외 프로그램은 KBS 2TV의 개그콘서트가 9위, KBS 1TV의 KBS 9 시뉴스가 11위로 나타나 비 드라마 부문을 대표해 그나마 드라마의 독주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했다.

2 개인시청률 Top 20 지상파채널 프로그램

개인시청률은 가구시청률과 거의 경향이 일치하지만, 가구시청률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보더라도 집계되는 반면 개인시청률은 가구 구성원 여러 명이 시청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수치라 개인의 차이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20위 내에 18개의 프로그램 드라마였던 가구시청률과 달리 개인시청률에서는 드라마 외에 4개의 오락 프로그램과

표 4-2-15 2012년 개인시청률 Top 20 지상파채널 프로그램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 회수	개인시청률	화별 최대	최고 1분
1	MBC	수목미니시리즈<해를 품은 달>	20	15.90	21.30	23.97
2	KBS 2TV	주말연속극<넝쿨째 굴러온 당신>	58	15.64	23.68	27.34
3	KBS 2TV	주말연속극<오작교 형제들>	15	14.65	17.69	21.20
4	KBS 2TV	주말연속극<내 딸 서영이>	22	12.65	15.62	18.51
5	KBS 2TV	<개그콘서트>	48	11.55	15.81	21.80
6	MBC	수목미니시리즈<해를 품은 달 스페셜 1부>	1	11.17	11.17	12.47
7	SBS	특별기획<신사의 품격>	20	9.51	12.92	16.89
8	KBS 1TV	일일연속극<힘내요 미스터 김>	20	8.68	9.77	12.22
9	KBS 1TV	일일연속극<당신뿐이야>	89	8.68	9.95	13.52
10	KBS 1TV	일일연속극<별도 달도 따줄게>	129	8.67	11.59	15.09
11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애정 만만세>	9	8.60	10.44	14.99
12	MBC	수목미니시리즈<해를 품은 달 스페셜 2부>	1	8.56	8.56	9.48
13	SBS	<일요일이 좋다>	47	8.22	9.52	14.70
14	MBC	<무한도전>	23	7.78	10.79	14.09
15	MBC	창사특별기획<빛과 그림자>	54	7.57	9.59	11.55
16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메이퀸>	30	7.36	9.35	14.19
17	KBS 2TV	특별기획드라마<각시탈>	28	7.33	10.52	12.80
18	KBS 2TV	월화드라마<브레인>	6	7.31	8.22	9.43
19	KBS 1TV	KBS(9시뉴스)	339	7.25	12.06	16.76
20	SBS	<힐링캠프 런던캠프 2부>	1	7.20	7.20	9.82

1개의 뉴스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가구시청률 상위에 포함된 KBS 2TV <개그콘서트>와 <KBS 1TV <9시뉴스> 이외에 SBS의 주말 오락 프로그램으로 ‘런닝맨’과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를 포함한 <일요일이 좋다>, MBC의 주말 오락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SBS의 <힐링캠프>의 올림픽 특별판인 <힐링캠프 런던캠프 2부>가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3 가구시청률 Top 20 유료채널 프로그램

유료채널의 인기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12개가 시청률 상위에 포함된 것이다. 채널별로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월드컵 축구

표 4-2-16 2012년 가구시청률 Top 20 유료채널 프로그램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 회수	가구시청률	회별 최대	최고 1분
1	JTBC	JTBC 스포츠축구<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한국:레바논)>	1	6.38	6.38	12.07
2	Mnet	<슈퍼스타K4>	15	5.87	7.27	8.98
3	Mnet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THE BATTLE>	4	3.58	3.94	4.91
4	채널A	<안철수 후보 사퇴 대선정국 긴급진단 1부>	1	2.87	2.87	3.49
5	JTBC	JTBC 특별기획드라마 <무자식상팔자>	10	2.75	4.06	5.98
6	JTBC	JTBC 스포츠축구<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한국:카타르)>	2	2.69	3.04	4.29
7	Mnet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BLIND AUDITION>	4	2.19	3.14	3.75
8	SBS ESPN	2012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1	2.10	2.10	3.69
9	JTBC	수목미니시리즈<아내의 자격>	16	2.07	3.41	4.55
10	Mnet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파이널>	1	2.06	2.06	2.55
11	Mnet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라이브>	6	1.99	2.67	3.52
12	MBN	<속풀이 쇼 동치미>	2	1.94	2.08	2.98
13	JTBC	휴먼다큐 <당신의 이야기 스페셜>	1	1.87	1.87	2.9
14	채널A	<안철수 후보 사퇴 대선정국 긴급진단 2부>	1	1.80	1.80	2.27
15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	28	1.73	2.94	3.85
16	Mnet	<MNET ASIAN MUSIC AWARDS 2부>	1	1.72	1.72	2.12
17	MBC SPORTS+	2012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	1.70	1.70	2.79
18	MBN	<아마존의 눈물>(재)	2	1.67	1.69	2.61
19	JTBC	JTBC 개국 특집 주말 특별 기획 <인수대비>	51	1.66	2.93	4.48
20	MBN	<아마존의 눈물>	1	1.64	1.64	2.47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 중계와 다수의 드라마를 포함하여 6개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은 Mnet이 대표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4>를 비롯하여 6개의 프로그램을, 종합편성채널인 MBN이 오락 프로그램과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 <아마존의 눈물>을 포함하여 4개의 프로그램을, 채널A가 최근 대선관련 프로그램 2개를 랭크 시켰다. 그 외 스포츠전문채널인 SBS ESPN과 MBC Sports+가 1개씩의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4 개인시청률 Top 20 유료채널 프로그램

유료채널 프로그램 개인시청률 상위 20위에서도 앞서 살펴본 가구시청률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이 상위에 랭크되었고, 음악채

표 4-2-17 2012년 개인시청률 Top 20 유료채널 프로그램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 회수	개인시청률	회별 최대	최고 1분
1	Mnet	<슈퍼스타K 4>	15	3.05	3.61	4.51
2	JTBC	JTBC 스포츠축구<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한국:레바논)>	1	2.63	2.63	5.22
3	Mnet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THE BATTLE>	4	1.71	1.81	2.31
4	JTBC	JTBC 특별기획드라마 <무자식상팔자>	10	1.09	1.76	2.41
5	Mnet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BLIND AUDITION>	4	1.08	1.60	1.91
6	Mnet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파이널>	1	1.07	1.07	1.35
7	JTBC	JTBC 스포츠축구<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한국:카타르)>	2	1.07	1.16	1.69
8	Mnet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라이브>	6	0.89	1.20	1.55
9	채널A	<안철수 후보 사퇴 대선정국 긴급진단 1부>	1	0.88	0.88	1.10
10	SBS ESPN	2012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1	0.86	0.86	1.55
11	Mnet	<MNET ASIAN MUSIC AWARDS 2부>	1	0.86	0.86	1.06
12	JTBC	수목 미니시리즈 <아내의 자격>	16	0.75	1.13	1.65
13	MBN	<속풀이 쇼 동치미>	2	0.70	0.77	1.18
14	MBC SPORTS+	2012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	0.65	0.65	1.14
15	JTBC	월화 미니시리즈 <빠담빠담>	12	0.64	0.78	1.18
16	TV조선	설 특집드라마 <아버지가 미안하다>	3	0.63	0.70	0.87
17	JTBC	휴먼다큐 <당신의 이야기 스페셜>	1	0.63	0.63	0.91
18	Mnet	<MNET ASIAN MUSIC AWARDS 1부>	1	0.62	0.62	1.00
19	Mnet	<MNET ASIAN MUSIC AWARDS 3부>	1	0.62	0.62	0.96
20	채널A	<안철수 후보 사퇴 대선정국 긴급진단 2부>	1	0.61	0.61	0.80

널인 Mnet, 스포츠 채널의 프로그램이 순위 안에 포함되었다. 다만, 채널A의 설특집 드라마인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가구시청률에서는 순위 내에 포함되지 못하였다가 개인시청률 상위에 포함되었다.